

2025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안전보건 연구공모 보고서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환경과
안전 위협 경험 연구

2026.01.

연구진

양현경	독립연구자, 배우 genderartlab@gmail.com
-----	-------------------------------------

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표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 가. 문헌 조사
 - 나. 심층 면접

II.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환경과 안전 위협 경험

1.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에 대한 인식
 - 가. ‘간절함’으로 인한 선택이자 ‘어필’의 수단
 - 나. ‘소모적’으로 ‘소비’되는 몸
 - 다. ‘문제’ 발생을 우려하지만 ‘디테일’이 부족한 현장
2.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중 안전 위협 경험
 - 가. 성적 행위 묘사가 아닌 ‘진짜’ 행위를 강요
 - 나. 사전 협의 없이 성적 재현이나 신체 노출을 지시
 - 다. 계획 없는 ‘시도’나 필요 이상의 반복적 수행
 - 라. 공연 또는 촬영 중 성희롱·성폭력
3. 여성 배우의 안전 위협을 조장하는 요인들
 - 가. 일상화된 고용 불안과 업계 내 서열
 - 나. 배우를 작품을 위한 수단으로 환원하는 규범
 - 다. 안전에 대한 협소한 해석과 저평가되는 여성의 안전 배려 노동

III. 결론

연구 요약

본 연구는 미투 운동 이후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인식 재고와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적 침해의 위험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과정에서의 안전 방안을 모색하는 단초를 찾기 위해 연극, 영화, 드라마에서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경험이 있는 여성 배우 8인, 영화, 드라마 제작 스태프 6인, 문화예술계 성폭력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원 1인을 심층 면접하여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과 관련된 인식, 수행 중 안전 위협 경험, 안전 위협을 조장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성적 행위 묘사 등 강도 높은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은 여성 배우에게 출연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선택이자 경쟁에서 자신을 ‘어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한편, 자신의 몸 이미지가 성적 이미지를 부각한 ‘소모적’인 방향으로 ‘소비’되는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제작진은 프로덕션의 결과물이 관객을 만나지 못하는 손실을 초래하는 성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공유하고 있었다. 배우 직군 연구 참여자들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을 수행 중 연기를 위해 어떤 행위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왜곡된 배우 규범 아래서 안전장치 없이 ‘진짜’ 신체 접촉을 강요받거나, 성적 의미가 부여된 행위나 노출이 의도된 의상 착용을 예기치 못하게 지시받거나, 계획 없는 ‘시도’나 필요 이상의 반복적 수행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인물에 대한 몰입을 방해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 또는 촬영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지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장르의 출연을 회피할 정도로 위축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안전 위협을 조장하는 요인으로서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서열이 강고한 업계의 구조와, 배우라면 연기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배우를 작품을 위한 수단으로 환원하는 규범이 있었다. 또한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에 있어서 여성 배우의 안전을 구축하는 일이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나 자원의 제공 없이 여성 배우와 여성 스태프들에게 맡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에서 여성 배우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와 상반신 이상의 신체 노출뿐이 아닌 포괄적 범위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에 관하여 제작 과정 전반의 실무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는 제도적 개입, 페미니즘 지식과 문화 산업 현장의 담론이 상호작용하는 교류의 장 확산, 여성 예술인이 문화 산업 현장과 대중의 소비 과정에서 겪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 창구 개설을 비롯한 정책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표

2025년 8월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애마¹⁾>는 1982년 발표된 영화 <애마부인>의 제작 과정을 모티브로 창작되었다. 당대의 스타 배우 정희란과 신인 배우 신주애가 신성영화사의 착취와 언론의 횡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으로, 과거의 실제 에피소드를 현재의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비틀어 영화 산업의 가부장성을 비판하고 있다. 신성영화사 대표는 소속 배우 정희란이 <애마부인>의 주인공 애마 역을 거절하자, 그를 조연으로 캐스팅한 뒤 추후 광고와 캐스팅에 지장이 있도록 악녀 이미지로 연출할 것을 감독에게 지시한다. 애마 역 오디션에서 발탁되어 배우로 데뷔한 신인 신주애는, ‘인생 다 걸고 죽어라 열심히’하겠다는 말과 함께 신체 노출이 가능한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디션장에서 상의를 벗는다. 신주애는 성적 재현 장면이 자신에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화 촬영을 중단시키는 정희란을 ‘쌍년’이라 비난하지만, 정치인의 파티에서 접객을 강요받고 기자의 성희롱과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쌍년’이라 부르게 된다. 정희란은 영화사 대표가 캐스팅을 빌미로 파티에 참석하게 한 신인 배우가 그 자리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여성 배우들에 대한 영화사와 정치계의 관행을 폭로한다.

연구 과정에서 인터뷰 참여자의 소개로 시정하게 된 드라마 <애마>는 본 연구의 계기가 된 문제의식을 상당 부분 다루고 있다. 캐스팅부터 공연 및 촬영까지 프로덕션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적 침해,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성적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환경에서 겪는 불안, 여성의 성을 남성이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작품에서 남성에게 종속되거나 과잉 성애화된 여성 인물을 연기하면서 느끼는 모멸감, 높은 수위의 성행위 묘사나 신체 노출 장면을 연기한 여성 배우를 상찬하는 동시에 비난하는 업계와 대중의 반응 등 다양한 현상을 통해 여성 배우가 처한 문화 산업의 현실을 드러낸다. 이와 동시에, 산업의 가부장적 구조에 저항하는 여성 배우들의 목소리 역시 등장인물의 관점과 행동에 토렷하게 담겨 있다. 작품을 시청하면서, 배우로서의 생존을 걸고 성적 침해에 저항한 여성들의 역사와 최근 10년간의 페미니즘 리부트, 해시태그 운동, 미투 운동을 거치며 문화예술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영화 <애마부인>에서 실제로 애마 역을 맡았던 안소영 배우는 2022년 예능 프로그램²⁾에서 촬영 당시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경험을 언급하였다. 물을 뿌리면 얼음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추운 날에 얇은 옷을 입고 야외에서 비를 맞으며 걷는 신을 촬영하는 등 당시 감수한 위험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신체 노출이 있는 촬영에서의 심리적 안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14년 한 예능 프로그램³⁾에서는 임권택

- 1) 2025년 8월 22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6부작 드라마. 연출과 극본을 이해영 감독이 맡았고, 이하늬, 방효린, 진선규, 조현철 배우 등이 출연했다. <애마부인(1982)>의 주인공 안소영 배우가 마지막 화의 시상식 장면에 카메오로 출연했다.
- 2) 2022년 2월 23일 방영된 KBS2 TV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같이 삽시다> 시즌 3의 51회로, 박원숙, 안문숙, 안소영, 혜은이가 출연했다. 당시 안소영 배우가 맨몸으로 안장 없는 말을 타며 촬영을 한 후 하혈을 했다는 내용, 초보 운전자임에도 시속 100Km로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는 장면을 스텐트 대역 없이 촬영하던 중 차량이 호수로 추락하는 사고를 겪고 간신히 탈출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 3) 이상아 배우는 2014년 1월 18일 방영된 MBC예능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퀴즈(약칭 세바퀴)> 235

감독이 <길소뜸(1986)> 프로덕션에서 섭외 당시에는 하지 않기로 했던 전신 노출을 마지막 촬영 날 강요한 사실이 알려졌다. 2017년에는 영화<뫼비우스(2013)> 촬영 중 김기덕 감독이 저지른 폭행과 강제추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변호인단 등으로 구성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⁴⁾하였다. 고소 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을 강요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무대와 스크린 속의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은 배우의 신체와 미술, 음악, 조명 등의 시청각적 효과와 함께 허구의 세계를 구축한다. 작품 속의 등장인물은 허구의 인물이지만, 연기를 수행하며 관객의 시선을 받는 배우는 실제 인물이다. 작품 창작 과정에서 현실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배우의 연기는 시청각적 효과들과 마찬가지로 연출가와 감독을 포함한 제작진의 통제를 받는다.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요소인 동시에 인물과 상황을 몸으로 구현하는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상품의 일부이자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여성의 몸과 몸 이미지가 소유나 교환이 가능한 상품으로 관리되는 문화 산업에서 여성이 겪는 높은 위험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기획사의 성 접대 강요에 관한 문건을 작성한 후 사망한 고(故) 장자연 배우 사건, 2015년 조덕제 배우의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사건, 극단 내에서 장기간 반복되다가 2018년 미투 운동을 계기로 형사처벌에 이른 이운택 성폭력 사건, 2019년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찍은 SNS 사진이 반복적으로 기사화되고 악플이 달리는 등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던 중 사망한 고(故) 최진리 배우 사건 역시 대중문화 산업을 포함한 문화예술계에서 여성 배우들이 겪는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착취의 일면을 드러낸다.

연구자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전문상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15년 이상 성폭력에 방교육 강사이자 연극배우로 활동해왔다. 2018년부터 연극계 미투 운동에 참여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을 토대로 「여성 연극인의 성폭력 대응 경험 연구(2024)」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를 진행하면서, 배우로 활동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작품 제작 과정에서 성적 재현 또는 신체 노출을 강요받은 경험을 성희롱·성폭력의 경험과 동일 선상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본 연구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프로덕션을 지휘하는 연출가나 감독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강요는, 예술을 빌미로 삼는 젠더 폭력의 또 다른 유형이자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강화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제도의 공백이었다. 이 공백을 메울 안전장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초를 얻기 위해, 여성 배우들이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을 어떠한 여건에서 수행하고, 어떤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지, 대처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엄마가 전화해서 못하겠다 했더니 감독님께서 저희 엄마한테 나도 일찍 결혼했으면 상아만한 딸이 있을텐데 그런 걸 내가 시키겠냐.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그거 믿고 갔죠. 근데 처음에는 약간 뽀뽀 정도?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을만큼 진행을 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 촬영 때 현장에 스튜디오에 갔더니 '(노래 부르듯) 상아는 오늘 벗어야 된다. 벗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벗어나고. 나 안 한다고 했고 감독님이 그거 안 시켜준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막 울었어요. 그냥 집에 가자고 짐 싸갖고 움직이려고 했더니 감독님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때 임권택 감독님 오셔갖고 냉정하게 딱 한 마디 하시죠. '너 돈 많아? 너 돈 많으면 이때까지 찍은 फिल्म값 다 물고 너 집에 가도 돼.'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중 2때. 찍었어요. 다 전라로.”

4) 진혜민(2020.12.15.). 영화감독 김기덕이 남긴 '역고소 소송' 어떻게 되나. 『여성신문』.

URL: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22>

2. 선행 연구 검토

여성이 다양한 예술 장르와 대중 매체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관한 연구에 비해, 연극, 영화, 드라마에서 여성 인물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몸으로 수행하는 배우의 경험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배우의 일 경험을 직접 청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일의 특성상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고, 연구 참여시 익명성에 기반한 안전을 보장받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배우가 참여하는 작품 제작 과정은 다양한 직군의 문화 산업 종사자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기에, 특정 프로덕션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알려지면 향후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여성 배우들의 일 경험에 대한 연구는 문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성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사회적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고(故) 장자연 배우 사망 후 연기자를 중심으로 <여성 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기자 그룹과 학원 수강 또는 대학에서 관련 분야 전공 중인 지망생 그룹으로 대상을 나누어 인권침해 경험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양쪽 모두 술시중 요구, 성 접대 제안, 관계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⁵⁾ 이 연구는 여성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가부장적 성문화와 연예인 수급구조의 불균형과 취약한 수익구조 속에서 윤리적 기준 없이 난립하는 영세 기획사, 캐스팅 권력을 남용하는 제작사, 여성 연예인을 상품화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언론·대중·스폰서라는 주체들로 구축되고 있음을 분석했다.

김신현경(2014)은 여성 연기자의 성형과 관련된 외모 관리 경험을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미디어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연기자에게 획일적으로 유형화된 매력적 이미지 중 자신에게 유리한 이미지를 선택하여 구축할 수 있는 전략과 외형적 자원이 중요해졌음을 짚고, 여성 연기자들이 이미지 상품화에 성공하기 위해 자신을 ‘관리하고 고쳐야 하는’ ‘원료’로 인식하여 몸을 변형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통해 자아를 바라보는 ‘이미지 상품-주체(image commodity-subject)’로서의 주체성을 구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퀴어페미니스트 미디어 그룹 연분홍치마의 김성희·김일란·한영희(2006)는 ‘에로영화’의 정치성에 주목하는 페미니즘 담론을 토대로 감독과 ‘에로 여배우’의 일 경험에 접근하고자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이들은 포스터 디자인이나 영화 미학,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의 태도, 에로영화 산업 관계자와 반성매매 활동가에게 ‘에로 여배우’를 인터뷰하겠다고 했을 때의 반응에서 받은 인상을 ‘조롱’의 태도로 이름붙이는 한편, ‘에로 여배우’ 1인의 의상 착용, 연기 방식 등 구체적인 일 경험을 청취한 후 페미니스트 관점의 성상품화 담론이 종사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위치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인물 산업의 여성 배우들을 획일화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김지아·윤영민·강귀영(2019)은 드라마 분석을 통해 여성 배우의 활동 전망이 남성 배우에 비해 불리하게 예측되는 점을 발견하였다. 배역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의 주요도는 감소하는

5) 연구결과 연기자 중 60.2%가 방송관계자나 사회 유력인사 성 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중 48.4%가 이를 거부한 후 캐스팅이나 광고출연 등 활동상의 불이익이 있었다. 지망생의 경우 29.8%가 성 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연예활동 경험이 있는 지망생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성 접대 제의를 받은 비율이 40.8%에 달했다.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방송 연예 관계자들의 의식변화(연기자 중 83.6%, 지망생의 82.1%)”와 “공정한 캐스팅 관행의 정착(연기자 중 84.5%, 지망생 중 71.8%)”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데, 여성 배우는 실제 연령보다 연상의 배역을 맡고 남성 배우는 실제 연령보다 연하의 배역을 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 배우의 배역 범위가 남성 배우보다 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배역의 극 중 주요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남성 배우에 비해 여성 배우에게서 강하게 드러났다.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환경에 대한 고찰은 인티머시 코디네이터(Intimacy Coordinator) 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명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상습적인 성폭력 고발은 할리우드의 미투 운동을 촉발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많은 여성 배우들이 캐스팅이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성적 착취를 폭로했고, 여성 배우가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연기를 할 경우 신체적·심리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친밀성(intimacy) 표현의 계획과 과정을 조정하는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의 양성과 도입이 확산되었다.

쇠렌센(Sørensen, 2021)은 인티머시 신(intimacy scene)이 싸움 장면과 마찬가지로 감정적, 신체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이 낮게 인식되었음을 지적하고, 문화 산업 내 평등 및 괴롭힘 방지의 문화적·경제적 가치 상승, 국가별 규제를 피하여 노골적 성적 표현을 더 빈번히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 콘텐츠의 확산을 배경으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의 도입이 장려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존 J. 정·피아 피시텔리(Chung&Piscitelli, 2025)는 공연과 드라마·영화 촬영에서 여성 배우들이 신체 노출과 모의 성행위를 수행하면서 성추행, 강간, 자신을 묘사하는 노골적인 성적 발언 등에 노출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여성 배우에게 산업 내의 권력 ‘불균형’으로 인한 ‘취약한 연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고 ‘덜 침습적인 선택지’를 제공받으면서 더 나은 장면을 만드는 윤리적 관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도입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극 창작 현장에서 여성 배우들의 성적 재현을 고민한 내용을 일부 다루고 있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양현경(2024)은 여성 연극인의 성폭력 대응 경험 중 젠더 폭력과 구분하기 어려운 방식의 성적 재현 연습과 신체 노출 강요의 사례를 언급하고 성적 재현 연습에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와 같은 전문 인력의 도입이 필요함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김선기(2025)는 미투 운동 이후 연극계에 진입한 청년 연극인들이 창작 과정의 민주적 소통을 중시하고, 연극계에서 젠더 폭력을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 관객과 이를 연기하는 여성 배우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직군으로 연출가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들은 프로덕션을 총괄하면서 홍보물에 트리거 워닝 삽입, 대안적인 장면 연출, 배우 심리상담 등의 안전장치 마련을 시도하였다.

페미니즘 문화 연구 이론은 본 연구에서 작품에서 재현되는 여성 이미지의 일부이자 문화 생산자로서 문화적 실천을 하고 있는 여성 배우의 상황을 분석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수잔나 D. 월터스(Walters, 1995)는 남성 시선으로 정형화된 여성 이미지와 현실을 반영한 여성 이미지를 단순히 구분할 수 없는 이미지의 복잡성과 가부장적 서사가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발생하는 모순과 균열, ‘현실의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대중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에 지식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이 논의를 토대로, 여성 배우가 대중문화 산업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상품이 되는 복합적 ‘현실’에서 여성 이미지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연구의 전제로 둘 수 있었다.

국내의 페미니즘 문화 연구는 여성의 성적 재현을 동시대의 정치적·사회적 배경과 연결시키

면서 남성 지배에 균열을 낼 여성 주체성을 발견해왔다. 주유신(2003)은 90년대 후반에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중심 주제로 다룬 남성 감독 5인의 작가론을 통해 그들의 영화에 여성을 타자화하는 민족주의 담론, 폭력의 성애화, 재생산권의 비가시화 등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 지배 욕구를 드러내는 재현적 장치들의 작동을 분석하였고, 박인영(2012)은 남성 청소년이 성장 서사의 주체로 소구력을 갖는 반면 여성 청소년은 성적 재현에 치중되는 2000년대 영화에서 여성 청소년의 성이 대상화되는 방식을 분석한다. 김지연(2020)은 1980년대 ‘에로영화’의 시대 이후 대기업 자본이 영화계에 투입되면서 시작된 1990년대 ‘기획영화’의 시대부터 한국 영화에서 청년 여성이 재현되는 방식의 지형도를 그리며,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청년 여성 관객이 만들어낸 관람 문화와 상업적 성과, 문화 산업 내 여성 종사자에 대한 지지 등이 영화 산업과 여성 재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공연예술학에서 배우의 심리적 위험을 다룬 연구와 문화 산업에서 여성 노동자와 보조출연자의 노동 실태를 다룬 연구는 본 연구에서 아직 개념화되지 않은 배우의 창작 현장에서의 ‘안전’을 탐색하는 단초가 되었다. 최윤경(2019)은 심리상담사의 대리 외상에 관한 이론과 사실주의 연기론을 바탕으로 배우의 일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위험을 설명하였다. 배우가 배역을 수행하면서 등장인물에 감정 이입하는 과정과 심리상담사가 내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과정의 유사점을 비교하고, 극 중 폭력 상황이 발생하는 작품에 출연한 배우의 간접 외상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강이수(2015)는 문화 산업의 유연성과 창조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담론이 문화노동에 내재된 차별적 관행을 은폐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프로젝트 기반 노동의 불안정성, 네트워크화된 노동방식,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한 자기 착취 증대라는 문화 노동의 특성과 함께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와 역할의 위계화, 네트워크에서의 주변화,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역할의 재전통화를 경험하는 여성 문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짚었다.

박유리·이현율(2025)은 보조출연자들의 노동 실태를 통해 보조출연자들의 노동을 비가시화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미디어 산업의 창의성 위계를 비판하며, 보조출연자를 착취하는 관행에 대응하여 노조 결성 등의 집단적 저항과 ‘연기자’로서의 ‘신분 이동’을 하고자 재숙련 과정을 거치거나 크레딧에 이름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적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아직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페미니즘 관점의 문화 연구와 섹슈얼리티 연구,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도입에 관한 정책 연구, 문화 산업과 창의 노동에 관한 이론 및 정책 연구를 참고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 드라마, 또는 연극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 배우와 제작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스태프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경험에 대한 진술이 포함된 인터뷰 기사, 예능 프로그램 영상, 보도 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령에 대한 해외 자료를 일부 참고하였다.

가. 문헌 조사

미투 운동 촉발과 함께 2018년 할리우드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타임즈업(Time's Up) 영국 지부가 발간한 「연예 산업을 위한 타임즈업 가이드라인」⁶⁾에는 오디션 및 신체 노출과 성적 재현 장면에서의 권리 침해를 명시하는 간략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누드, 친밀성, 성 행위 장면에서의 권리(Your Rights in Nude, Intimate, and Sex Scenes)」에 명시된 제작진의 의무와 금지 사항은 여성 배우들에 의해 보고된 성적 침해의 유형을 금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괴롭힘과 성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며,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배우들에게 모의(simulated) 성행위가 아닌 실제 성행위를 요구할 수 없음. 신체적 장벽 없는 성기 간 접촉, 누드나 옷을 입은 상태의 성행위 모두를 포함함.
-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누드 또는 성행위 장면을 촬영할 수 없음. 사용하지 않는 촬영물은 삭제하시거나 안전하게 보관.
-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홍보물, 홍보 자료, 예고편에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나 사진을 사용할 수 없음.
-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배우를 괴롭히지 않을 것.
- 모의 성관계, 노출, 성폭력 등의 상황에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것.

이 지침에는 인티머시 코디네이터(Intimacy coordinator)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는 친밀성 표현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장면에서 ‘공연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유지하면서 상연을 위한 감독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는 ‘움직임 지휘 및 코칭, 배우의 편안함과 성적 건강에 관한 보호 장비, 정신 건강 응급 처치 및 트라우마 훈련, 동의 언어 훈련, 갈등 해결 훈련, 괴롭힘 방지 및 민감성 훈련’ 등을 거친 전문가로, ‘배우와 제작진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배우들을 위한 옹호자이자 안무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전신 노출 또는 모의 성행위가 포함된 장면의 촬영을 투자자나 방문객 등 필수적이지 않은 인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 리허설이나 촬영이 중단되었을 때 배우의 몸을 가릴 가운을 제공할 것 등 촬영이나 리허설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신체 노출이나 모의 성행위에 대한 동의서 작성과 변경은 촬영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공연의 경우 연습 전에 배우에게 신체 노출이나 모의 성행위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신체 노출과 모의 성행위에 관한 보충 규정(Nudity and Simulated Sex Rider)」에는 신체 노출과 성적 재현에 대하여 출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과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배우가 연기하기로 동의한 모든 장면의 관련 대본 페이지 첨부
- 후면 전신 노출, 상반신 노출 여부를 명시 : 예를 들어, 옷을 덮은 채 성기 앞쪽에 손을 올려놓고, 가슴 위로는 노출하지 않은 채로 수행한다.

6) 「The Time's Up Guide to Working in Entertainment」 출처: <https://timesupuk.org>

- 모의 구강 성교 등 모의 성행위, 입술을 다문 키스, 입을 크게 벌린 키스, 혀를 내밀어야 하는 키스 등 구체적으로 표현
- 신체 노출 부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의상 제시 : 수영복 착용, G-스트링이나 팬티 착용 등.
- 가슴, 엉덩이, 목 등 자신의 신체에서 접촉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위치를 표시
-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접촉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위치를 표시

이와 같이 출연 장면에서 해당 배역이 묘사해야 할 성적 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신체 접촉 및 신체 노출 범위에 대한 동의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의 행위나 노출을 연습 및 공연 또는 촬영 현장에서 요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다수의 인원이 협업하고 있는 창작 현장의 긴장감이나 연출가의 권위 등이 여성 배우의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신체를 노출하거나 신체 접촉이 있는 취약한 상태에서 연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22년 6월 22일 약칭 「AV출연피해방지구제법」⁷⁾을 제정하였다. 성인물에 출연하는 여성 배우를 대상으로 하는 신체 노출 강요와 성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계약에 포함시키고, 계약 해지를 빌미로 촬영 비용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마련한 법적 장치다. 이 법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PAPS⁸⁾를 비롯한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성인물임을 밝히지 않고 영상 출연을 제안한 뒤 현장에서 성인물 촬영을 강요하거나, 성인물 촬영 중 배우들에게 성폭력 및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법령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AV출연피해방지구제법」은 ‘성행위 영상제작물에 대한 출연과 관련된 피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입은 출연자의 구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출연자의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울러 그 심신의 건강 및 사생활의 평온 기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제정 목적에 명시하고 있다. 주요 골자로는 성행위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출연자에 대한 ‘성행위의 강제 금지’와 ‘출연 계약의 효력의 제한 및 해제와 금지청구권의 창설’,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출연자 등을 위한 상담체제 정비’ 등이다.

「AV출연피해방지구제법」 제4조에 따르면 '성행위 영상 제작물'의 제작자는 촬영 1개월 전까지 출연자와 성행위와 관련된 자세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 제작물의 구체적인 공개 방법과 기간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조는 출연자가 계약에 명시된 성행위에 관한 자세를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작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배우가 협의를 요청할 때 촬영 지연이나 추가 편집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7) 정식 명칭은 「성을 둘러싼 개인의 존엄이 중시되는 사회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행위 영상제작물 출연 관련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출연자 구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출연계약 등에 관한 특칙 등에 관한 법률(性をめぐる個人の尊厳が重んぜられる社会の形成に資するために性行為映像制作物への出演に係る被害の防止を図り及び出演者の救済に資するための出演契約等に関する特則等に関する法律)」이다.

원문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8) <PAPS(People Against Pornography and Sexual Violence)>는 성착취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피해 상담, 유포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아웃리치,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는 일본의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 언론에는 <포르노 피해와 성폭력을 생각하는 모임:PAPS>로 소개되고 있다.

출처 : PAPS 홈페이지 (www.paps.jp)

배우에게 제작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제8조는 영상물의 제작·공표자가 출연자에게 공표 전 영상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출연자가 영상물 공개 후 1년 안에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작·공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출연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자 출연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위협을 하는 경우, 필수 출연 계약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가능한 처벌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AV’는 성적 자극을 주요 목적으로 한 성인 대상 영상물이지만, 성적 행위 묘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를 의무화하고 배우에게 영상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통상의 영화나 드라마 프로덕션에서도 배우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성인물’로 분류되는 영화와 순수예술 장르로 분류되는 영화 프로덕션의 경계가 실제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심층 면접

심층 면접 참여자는 공개 모집과 의도적 표집, 눈덩이 표집으로 확보하였다. 1차 모집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하였고, 연구자의 SNS 계정과 연극계 종사자들이 모여있는 업무 관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래 이미지와 설명글, 참여 신청 구글폼 URL을 게시하여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 설명에는 ‘3년 이상 배우로 종사하였으며 연극, 영화, 드라마에서 성적 재현 또는 신체 노출이 있는 역할을 배우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과 여성의 성적 재현 또는 신체 노출이 있는 연극, 영화, 드라마 프로덕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년 이상 경력의 스태프(성별, 분야 무관)’를 모집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에 배우와 스태프를 모두 명시하였으나 공개 모집에 응한 참여자는 모두 배우였다. 연구 주제가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환경과 안전 위협 경험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과 연구자가 배우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SNS 관계망에 배우가 다수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 인터뷰 참여자 모집 공고 이미지



배우 직군 참여자는 총 8인을 면접하였으며, 이 중 7인은 공개 모집 신청 링크로 신청하였는데 그중 2인은 앞서 심층 면접에 참여한 참여자의 소개로 신청하였음을 밝혔다. 배우 직군 중 8번째 참여자인 <사례 H>의 경우 연극과 영화 출연 경험이 모두 있는 참여자를 추가로 면접할 필요성을 느껴, 연구자가 이력을 알고 있는 배우 중 의도적으로 표집하여 섭외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신원이 특정될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목록에는 나이를 연령대로 기입하였다.

[표 1] 배우 직군 연구 참여자 목록 (8인)

사례	주 활동 분야	나이	경력
A	연극/영화	20대	4년
B	연극	30대	15년
C	연극	40대	19년
D	연극	30대	10년
E	영화	30대	5년
F	연극/드라마	30대	9년
G	영화/드라마	20대	4년
H	연극/영화	30대	10년

배우가 프로덕션에서의 안전 위협 경험을 연구자와 대면하여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심층 면접으로 진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고려했을 때, 배우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한계가 예상되었다. 스태프라면 자신을 안전 위협의 당사자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 직군보다는 다소 낮은 부담으로 심층 면접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고, 영화·드라마 제작 현장의 경우 흔히 ‘베드신’이라 칭하는 성적 행위 연기와 신체 노출이 있는 장면 촬영에 통용되는 실무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참여자 중 절반 이하를 제작 및 기타 직군에서 확보하고자 하였다. 모집 방식은 연구자가 연극 활동과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하면서 교류가 있었던 영화·드라마 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하여 섭외하였다.

직군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연출, 기획, 촬영, 매니지먼트 직군이 각각 포함되도록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사례 K>의 경우 직함은 <사례 I>, <사례 J>와 동일하게 프로듀서이나, 영화 프로듀서는 제작 업무에 중점을 두는 반면 드라마 프로듀서는 연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영화 프로덕션에서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연출 직군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경향성을 질문하고자 문화예술계 성폭력 상담창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성폭력전문상담원 1인을 섭외하였다.

[표 2] 제작 및 기타 직군 연구 참여자 목록 (7인)

사례	직종	종사 분야	나이	경력	성별
I	프로듀서	영화	50대	31년	여성
J	프로듀서	영화	50대	25년	여성
K	프로듀서(연출)	드라마	40대	20년	남성
L	촬영감독	영화/드라마	20대	7년	여성
M	촬영감독	영화/드라마	30대	13년	여성
N	기획사대표	매니지먼트	40대	22년	여성
O	성폭력전문상담원	문화예술계 성폭력 상담	40대	4년	여성

심층 면접은 질문지를 사전에 제시하고 인터뷰에서는 참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진술하게 하는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영화, 드라마, 연극 프로덕션에서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을 직접 수행한 경험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험에 대하여 캐스팅, 연습, 공연 및 촬영 등 프로덕션의 단계에 따라 필요했던 사항과 협의 과정, 정보를 얻거나 상의할 기회의 여부, 해당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심층 면접 질문지

<p>[공통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과 나이, 주 활동지역과 거주 지역을 알려주세요. • 어떤 경로로 배우/스태프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p>[배우 직군 질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덕션에서 성적 재현 또는 신체 노출을 어떤 방식으로 제안받으셨나요? • 제안을 받고 거절 또는 수락하는 과정은 어떠하였나요? • 제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민하셨나요? • 관련하여 정보를 얻거나 상의할 수 있는 사람/커뮤니티가 있었나요? •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에 대한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받으셨나요? • 연습 또는 리허설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상연이나 촬영 과정은 어떠했나요? 제안받은 내용과 계획, 실제 수행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나요? • 필요한 사항은 누구와 협의하였나요? 협의할 수 있었던 사항과 할 수 없었던 사항은 무엇인가요? •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 수행 경험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나요? •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 수행 경험이 일에 대한 나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나요?
<p>[제작 직군 질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성적 재현 또는 신체 노출이 포함된 맥락이나 기대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 배우에게 관련하여 제안을 하신 경우, 제안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민하셨나요? • 배우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장면 제작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받거나 다른 스태프에게 전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거나 상의할 수 있는 사람/커뮤니티가 있었나요? •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작성되었나요? • 연습 또는 리허설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상연이나 촬영 과정은 어떠했나요?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 계획 - 리허설 - 상연 또는 촬영 과정에서 성적 재현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사항은 무엇인가요? • 필요한 사항은 각각 누구와 협의하였나요? •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바가 있나요? •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을 포함한 작품 제작 경험이 일에 대한 나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나요?

II.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환경과 안전 위협 경험

배우 직군 참여자들이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을 수행해야 했던 현장은 연극, 영화, 드라마 프로덕션이었다. 해당 프로덕션들은 대사와 줄거리가 있는 서사 중심의 작품을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영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영화, 드라마와 배우가 실시간으로 관객 앞에서 연기하는 연극의 제작 과정은 차이가 있다. 연극 프로덕션에서는 대본, 영화와 드라마 프로덕션에서는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텍스트가 있고,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연출가의 역할을 하는 연극 연출가·영화 감독·드라마 PD가 최종 결과물을 구상하여 제작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영화·드라마의 경우 글이나 그림으로 콘티를 작성하여 화면의 구도와 카메라의 움직임을 표시한다. 연극의 경우 카메라가 무대 위의 요소들이 관객에게 모두 동시에 노출되어 있어 스태프들도 무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그대로 따라가며 시청각적 요소를 제공한다. 그러나 영화와 드라마의 경우 관객은 촬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 중 카메라가 비추는 것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카메라가 피사체를 어느 정도 가까이에서 비출 것인지, 어떻게 움직이며 비출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해야 효율적인 촬영 진행이 가능하다. 배우 역시 콘티를 보고 카메라가 자신을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가까이 찍는지, 신체 중 어느 부분이 나오는지 알게 된다.

배우 직군 참여자들이 해당 프로덕션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학업 수행, 오디션을 통한 공개 모집, 업계 네트워크를 통한 소개가 있었다. <사례 B>와 <사례 D>의 경우 대학 재학 중 실기 수업에서 제작한 공연에 출연하면서 겪은 경험이 주요 사례였다. <사례 A>의 경우는 오디션으로 캐스팅된 연극 프로덕션에서의 경험을 진술하였고, <사례 F>는 단원 오디션을 통해 입단한 극단 공연에 출연하면서 발생한 상황을 진술하였다. <사례 C>와 <사례 E>는 업계 네트워크를 통한 소개로 캐스팅 제안을 받았다. 이외에도 제작사가 기획사에서 제공하는 프로필 정보를 열람하고 캐스팅을 제안하거나, 연출자가 해당 배우의 출연작을 보고 섭외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작 직군 참여자의 경우 모두 프리랜서였고 업계 경력이 최소 7년에서 30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업계 네트워크를 통하여 프로덕션에 참여하고 있었다. 기획자와 연출자의 경우 프로덕션의 관리자급 인력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섭외가 주요 활동 경로이고, 촬영 분야의 경우 '헤드 스태프'라고 불리는 감독직을 섭외하고 헤드 스태프가 네트워크를 통해 팀원을 고용하며, 촬영 분야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인력을 모집하기도 한다. 배우들 역시 오디션 정보가 공유되는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한다. <사례 A>는 이러한 사이트 중 하나에서 오디션 정보를 보고 응시하여 참가하게 된 프로덕션에서의 경험을 진술하였다.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을 직접 수행한 배우 직군 참여자를 기준으로 할 때, 연극에 출연한 경우 상대방과의 성적 행위를 움직임으로 묘사하는 성적 재현이 주를 이루었고,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한 경우 성적 행위 묘사가 아닌 신체 노출이 많았다. 여덟 명의 사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연극에서의 성적 재현이 영화보다 간접적 묘사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 직군 연구 참여자 8인 중 수행해야 하는 성적 행위 묘사나 신체 노출의 내용이 대본이나 시나리오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경험을 한 것은 <사례 C>와 <사례 G> 2인뿐이었다. <사례 E>와 <사례 F>는 대본 또는 시나리오에 성적 재현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인 뉘앙스의 연기를 요구받았다. <사례 B> 역시 대본에서 인물 간 성관계가 있는 후의

상황임을 암시할 뿐 신체 노출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례 D>는 원작에 없는 성적 행위 묘사가 삽입된 각색 대본을 공연하였는데 역시 해당 장면에서 두 인물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표현은 없었다. <사례 A>의 경우 인물의 배경 서사일 뿐 공연 장면에 없는 내용임에도 연출가가 이를 연습에서 움직임으로 묘사하게 하였다.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에 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 배우 직군 참여자는 <사례 E> 1인뿐이었다.

제작 직군 참여자들은 프로덕션에서 각자의 직무를 하면서 배우의 수행을 목격하였다. 연출 직군의 경우 각본에 따라 배우에게 장면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연기의 목표를 지시하고, 촬영 직군은 현장 세팅과 촬영 과정에서 배우의 의상 등 사전 준비와 연기 수행을 지켜보게 된다. 기획 직군의 경우 배우에게 요청하는 신체 노출의 범위를 매니지먼트사와 사전 협의하고, 촬영 후 보정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조율한다. 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출연 계약을 매개하면서 신체 노출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촬영 현장에 동행한다. 현장에서 협의가 반복되거나 추가로 조율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제작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제작 직군 참여자는 모두 성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 묘사나 신체 노출이 포함된 장면의 촬영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심층 면접을 진행하면서, 배우 직군 참여자가 제작 직군 참여자보다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의 범위를 넓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작 직군 참여자가 언급한 장면은 성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베드신이나 키스신, 또는 강간 피해 장면이었던 반면, 배우 직군 참여자들은 다리나 어깨의 노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움직임, 여성성이 과도하게 강조된 의상 등 보다 다양한 사례를 진술하였다. 이는 제작 직군의 경우 배우가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가슴이 드러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 노출이 있을 때 실무가 추가되거나 현장에 제약이 생기는 등 직무에 영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배우 직군의 경우 자신의 움직임이나 의상에 따라 신체가 더 노출되거나, 성적 뉘앙스가 추가되면서 인물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등의 변화가 모두 연기와 자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장에 있는 제작진과 객석에 앉은 관객의 시선과 긴장을 몸을 느끼고 있는 점도 신체 노출에 대한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직군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 차이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제작 직군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43.5세)과 배우 직군 참여자의 평균 연령(33.5세)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리부트와 미투 운동이 촉발된 2010년대 후반에 활동을 시작한 20-30대 연구참여자들이 일터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과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문제의식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문제의식이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1.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에 대한 인식

‘성적 재현’이라는 용어는 페미니스트 문화 연구에서 대중 매체가 여성을 어느 위치에서 어떤 성적 존재로 포착하는지 비평하는 담론에서 활발히 쓰여왔다. 여기에서 성적인 것의 범주는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나 성적 욕구에 대한 표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여성 인물이 다른 등장인물에 의해 성적 대상으로 의미 부여되거나, 여성 스스로 자신의 성적 매력을 인식하여 이를 약화하거나 강화하는 등 성과 관련된 인식, 관습, 이를 매개로 맺는 관계의 양상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적 재현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질문했고, 통상 작품 제작 현장 실무에서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키스신, 베

드신 등의 직접적인 성적 행위를 재현하는 경우 성적 행위 묘사로 언급하였다.

성적 행위 묘사 중에서도 신체 노출과 직접적인 성적 행위 묘사가 동반되는 베드신 촬영의 경우, 계약서 조항과 촬영 실무 지침 등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배우 직군 연구 참여자 중 베드신 촬영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가 없었기에 여성 배우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는 없었다. 제작 직군 연구 참여자의 경우 연출부나 촬영팀으로 베드신 촬영에 참여한 사례가 있었지만 각자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적 참여 경험이었기에 역시 프로덕션의 전 과정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이처럼 심층 면접에서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의 물리적 환경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에,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에 대한 인식을 중점에 두어 살펴보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이 있는 프로덕션에 참여하거나 직접 이를 수행한 경험뿐 아니라, 캐스팅을 제안받은 경험, 오디션에 응시한 경험, 대학 수업에서 요구된 과제, 성적 행위 묘사와 신체 노출의 수위가 높은 작품 관람 등 다양한 경험을 진술했다. 직접 연기로 수행한 경험뿐 아니라 타인의 수행을 관객의 위치에서 목격한 경험, 업계 관계자나 관객들과 상호작용한 경험 등이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게 하는지, 이러한 인식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가. ‘간절함’으로 인한 선택이자 ‘어필’의 수단

매니저 경력 22년 차로 현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 N>은 연극에서 전신 노출이 있는 배역을 수행하는 배우의 매니저로 일한 경험이 있다. 해당 작품을 관람하면서 작품의 흐름에서 전신 노출이 필요한 이유를 찾기 어려웠기에, 배우가 출연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다. 배우에게 이유를 질문하자, 연기를 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인해 ‘선택권이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다른 작품들은 다른 배우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정말 [배우가] 손을 들어서 뽐는 상태인 거고.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 해.’ 그랬을 때 거절하면 못하는 거지만, ‘너 해.’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사례 N>

<사례 F>는 예술 외 분야에 취업하여 직장 생활을 하던 중, 20대 중반에 연기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영화감독인 강사가 배우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수업을 하던 중 수위 높은 성적 재현 장면을 연기한 이력이 있는 유명 여성 배우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신체 노출을 하였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강사는 이런 배우들도 ‘벗어야 되는’ 상황이니 너는 ‘더 위험한 상황’이다,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체 노출이 여성 배우에게 기회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위험이라는 강사의 말은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성적 재현이나 신체 노출 정도가 강한 배역이 주어진다면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도 ‘타협’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무력감을 느껴요. 이런 성적 노출이나 성적인 취약감을 느끼는 환경에서는 제가 타협을 못 할 것 같아요. (...)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냥 위험한 일인 거 아닐까?” <사례 F>

<사례 N>과 <사례 F>의 에피소드는 모두 신체 노출이 있는 배역이 여성 배우에게 경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사례 N>에게는 다른 기회보다 다소 경쟁률이 낮은 기회로, <사례 F>에게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에서 통상 ‘기회’라는 단어가 갖는 성취와 긍정의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다. <사례 N>이 매니지먼트를 했던 배우는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선택권이 없다’고 느꼈고, <사례 F>는 강사의 말을 듣고 자신이 신체 노출이 있는 배역에 대해 ‘타협을 못 할’ 것이라는 ‘무력감’을 느꼈다. <사례 N>이 매니지먼트한 배우의 답변은 무대에서 연기할 기회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캐스팅 제안에 대해 달리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짐작을 해보게 한다. <사례 F>의 경우 신체 노출이 있는 배역이 ‘위험’하다고 느껴지지만, 인지도 높은 배우들도 거절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신인 배우인 자신은 주어진다면 수행할 수 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N>이 매니지먼트한 배우가 전신 노출이 있는 장면을 연기해야 하는 배역으로 출연한 작품은, 국내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 장기 공연을 거듭한 작품이지만, 배우는 해당 공연에 출연한 것을 자신의 ‘간절함’으로 방어해야 했다. <사례 F>에게 신체 노출에 대해 언급한 강사가 예로 든 배우들은 현재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이 있는 배역으로 출연한 대표작들은 모두 관객 수가 100만 이상이었다. 그러나 강사는 이들이 높은 자본이 투여되는 작품의 캐스팅 기회를 실력으로 쟁취했다기보다, 배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벗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리라 단정하고 있었다.

이는 신체 노출이 여성 배우의 기회라는 언설이 사실상 여성 배우로 하여금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성적 행위 묘사와 신체 노출 수행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자신을 배우로서 ‘어필’하는 역량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례 B>는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면서 ‘과감하게 어필’하고 ‘화제가 돼야’한다는 강박이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문화를 경험하였다. ‘경쟁심’으로 인해 신체 노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당연시되기도 했다. 신체 노출을 수행하면서 심리적 부담을 겪어도, ‘배우’이기 때문에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왜? 이 정도도 못해, 배우가? 그게 그때 당시의 문화랄까요?” <사례 B>

“누가 더 과감하게 어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쟁력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너무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린 경쟁심으로 인해서.” <사례 B>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을 경쟁력을 획득하는 ‘과감한 어필’로 인식하는 문화는, 성적 재현과 관련된 성적 침해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을 스스로 억압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사례 H>는 대학 재학 중 교내 공연 오디션 현장에서 학생의 가슴 크기를 언급하며 비하하는 등 교수들의 노골적인 성희롱을 경험했다. 교수의 성희롱에 위축되거나 불편함을 말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누가 더 센지’ 경쟁하듯 자신이 성적 매력이 있음을 주장하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사례 B>가 말한 ‘과감한 어필’에 대한 압박과도 유사해 보인다. 오디션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노골적인 언어와 함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평가하는 관행이 남성 학생들에게도 답습되면서, 성희롱은 유희 거리로 일상화되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그렇게 배워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성적으로 농담했을 때 여자 배우들이 좀 시원시원하게 받아치고 이래야 성격이 좋은 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고. 그럼 그걸로 배운 남자애들은 똑같이 하죠. 그런 식으로 이상한 잘못된 문화가 생겨났고.” <사례 H>

기획사에 소속되어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 G>는 베드신이 있는 영화의 주연 배우 오디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오디션 준비 중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다른 기획사 관계자가 소속 배우에 대해 ‘노출 다 가능하다’며 ‘간절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신체 노출이 ‘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배우의 수행 의지가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 것이다.

“저도 회사에서 대본을 보고 ‘노출 있는 거 확인했고 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회사가 프로덕션에 그런 식으로 말을 전달했다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배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작품을] 하고 싶은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사례 G>

강도 높은 성적 행위 묘사나 신체 노출을 수용하는 것이 ‘간절함’의 표현이자 자신을 ‘어필’하는 방편이라면, 이에 대해 협상을 시도하는 배우는 ‘간절함’이 없거나 자신을 ‘어필’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수도 있다. 기회를 원하는 ‘간절함’이 배우를 평가하는 기준에 포함되고, 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내하겠다는 착취적 결심이 ‘어필’로 통용되는 업계에서 배우들은 신체적·심리적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소속사에서 신체 노출이 ‘다 가능’하다고 ‘어필’한 배우는 캐스팅 후 제작진과 어떤 내용의 협의를 할 수 있을까? 창작 여건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고, 배역을 선택한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정적인 시선을 방어해야 하는 여성 배우가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과 관련된 안전을 추구할 협상력을 갖는 모습은 다소 상상하기 어렵다.

나. ‘소모적’으로 ‘소비’되는 몸

강도 높은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은 여성 배우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여 활동 범위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⁹⁾. <사례 N>은 여성 배우들이 신체 노출 장면이 있는 배역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묻는 질문에 자신이 ‘노출을 했을 때 어울리는 배우인지’ 고민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신체 노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신체 노출을 하는 배역은 선한 인물일 수도 악한 인물일 수도 있고, 성격이 거친 인물일 수도 유약한 인물일 수도 있다. 이외에도 연령, 직업, 신체 노출을 하는 상황의 맥락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의 묘사는 이러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배우의 이미지에 미치는 공통적인 영향이 있다고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졸업 직후 배우로 데뷔하여 10년간 연극, 영화, 광고에 출연해 온 <사례 H>는, 수년 전

9) 2023.4.3. <유퀴즈온더블럭> 187화에 삽입된 인터뷰에서 전도연 배우는 영화 <해피엔드(1999)> 출연 후 광고 계약이 끊겼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찍을 때는 어쨌든 순수한 선택이었는데. 했던 광고들이 다 끝났죠. 그것도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를 몰랐고. 몰라서 시작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알았죠. 사람들이 여배우한테 바라는 이미지나 인식이 어떤지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신체 노출 수위가 높은 비중 있는 조연으로 드라마 캐스팅 제안을 받았다. 제작 규모가 크고 흥행도 예상되는 작품이었지만, 드라마와 영화 경력이 다수인 배우와 감독 선배들에게 조연을 구하며 고민한 끝에 캐스팅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인인 자신이 성적인 이미지로 ‘소비’되면서 대중에게 각인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높은 수위의 신체 노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 ‘노출이 가능한 배우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을 우려했다.

‘노출이 가능한 배우라는 꼬리표’라는 표현은,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이 강한 배역이 이후 자신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노출이 어울리는 배우’보다 좀 더 낙인에 가까운 표현이기도 하다. 상업 영화나 드라마에서 성적 행위 묘사와 신체 노출을 작품에 삽입하는 방식은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보다 여성의 노출된 신체 이미지와 성적 행위 묘사를 스펙터클로 활용하여 관객의 시선을 끌거나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중에게 자극적인 이미지로 각인될 가능성이 크다. 인물이 단편적으로 묘사되거나 인물의 서사가 관객의 공감을 얻지 못할수록 성적 이미지만 각인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사례 G>는 성적 행위 묘사와 신체 노출이 있는 배역의 오디션 참여를 고려하면서, 공개 이후 신체 노출 장면 영상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사용되는 등의 ‘파생될 문제’를 떠올리게 되었다.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OTT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들이 각자 소유한 기기로 캡처 등의 복제가 가능한 고화질의 영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사례 B>는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이 강한 작품에 출연한 학교 선배들이 동문들 사이에서 ‘자극적인’ 장면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 회자’되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 이 경험이 신체 노출이 있는 배역의 영화 캐스팅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배우보다 ‘그 장면만’ 남는 현실은 중장년까지 경력을 유지하는 남성 배우와 달리 ‘어리고 예쁘고 새로운’ 얼굴로 ‘계속 갈아치워’ 주어야 하는 ‘소모적’인 존재라는 여성 배우의 위치를 재확인시킨다.

“그 장면만 뜨겠지. 그 개인은 절대 뜰 수 없어요. 요즘에 한국 영화든 뭐든 너무 재미있는 게 남자 배우는 유명한 사람들을 계속 돌려막기로 주인공하고 여자 배우는 뉴[페이스]가 계속 와서 더 젊고 어리고 예쁘고 새로운 신인 배우들이 오는 게 너무 웃겨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사례 B>

연구 참여자들의 우려는 대중이 여성의 신체 노출과 성적 행위 묘사 장면을 소비하는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 여성 배우의 인물 표현이나 서사의 맥락보다 몸 이미지에서 성적 자극을 유도하는 방식의 영상물 소비는, 배우 직군의 연구 참여자들이 이미지로 ‘소비’되거나 ‘소모’될 것을 우려하는 내용 중 가장 폭력적인 방식일 수 있다. 영화, 드라마의 성적 행위 묘사 장면을 성인물과 같은 방식으로 제목을 붙이고 유통시키면서 수익을 얻는 유튜브 계정이나 웹사이트 운영자들도 있다. 이들은 키스신이나 베드신 등의 성적 행위 묘사 장면만을 별도로 편집하여 게시하거나, 성적 행위 묘사 장면이 특정 영화나 드라마에서 몇 분 몇 초에 등장하는지 기록한 ‘좌표’를 공유한다. 언론 역시 여성 배우의 성적 행위 묘사나 신체 노출 장면을 선정적인 헤드라인으로 보도하고, 해당 장면 중 심의 기준을 겨우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이미지를 캡처하여 보도하면서 높은 조회 수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 배우들은 성적 이미지로 ‘소비’되지 않고자 저항한다. 전신 노출 등의 소위 ‘파격적’ 신체 노출로 화제가 되는 작품의 경우, 여성 배우들은 시사회와 인터뷰마다 자신이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고민하였음을 역설하고, 해당 재현이 신체 노출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여성 배우가 신체 노출 장면 외의 연기나 작품 전반에 걸친 인물의 해석을 재질문하지 않은 채 ‘노출’을 키워드로 넣은 헤드라인을 작성하는 언론의 태도 앞에서 힘을 잃기 쉽다. <사례 H>는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을 한 여성 배우에게 배우로서의 해석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고 신체 노출이 ‘힘들었는지’ 정도의 단순한 질문만을 던진 뒤 ‘파격’이나 ‘대담함’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관행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누군가 앞에서의 노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왜 대단한 건지는 자유롭게 얘기가 좀 더 나눠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부끄럽고 민망한 온도 말고도 더 작품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그 노출을 작품 안에서 한 이유가 더 납득이 되고 명분이 서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헤드라인 기사로 사용되고 정작 거기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그냥 ‘노출 힘들지 않았어요?’ 이 정도 밖에 없고.” <사례 H>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장면이 작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작가 또는 감독의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그 맥락을 질문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여성의 성을 팝진성 있게 묘사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부담은 여성 배우의 ‘힘듦’에 비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촬영 과정에서 배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묻지 않는다. 작품의 서사와 인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자 한 노력보다 성적 행위 묘사와 신체 노출 장면이 부각될 때, 여성 배우들은 고유의 개성을 지닌 배우가 아닌 남성의 성적 대상이 되는 여성의 몸으로 환원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다. ‘문제’ 발생을 우려하지만 ‘디테일’이 부족한 현장

국내에서 영화 프로듀서로 30년 이상 활동한 <사례 I>는 미투 운동 이후 편집까지 마친 영화나 드라마가 ‘창고’로 들어가는 경우를 겪으면서, 제작사들 사이에서 촬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이 높아졌음을 설명했다. 저예산이라 하더라도 역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2016, 17년도에 [영화 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처음 받을 때도 항상 큰 화두는 그거였어요. 주연 배우가 사고 치면 영화 스톱시킬 수 있냐, 영화감독이 사고 치면 그 영화 접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화두였거든요. 근데 접어지더라고요.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 창고로 들어가고. 중간에 뭐 문제가 되면 다 스톱시키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Q : 그게 무슨 힘일까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관객들이 이제는 그런 영화들을 소문나면 안 본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했는데.” <사례 I>

촬영 중 성폭력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2015년 조덕제 배우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상대 배우를 추행한 사건이다. 촬영 현장은 다수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 일하는 공개된 장소임에도 연기를 빙자한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점이 업계 관계자와 시민들

의 주목을 받았다. 드라마 연출가인 <사례 K>는 성폭력 장면이 있는 드라마를 촬영하던 시기에 이 사건이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가해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등¹⁰⁾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어 드라마 산업 종사자들이 경각심을 느꼈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 <사례 K>

미투 운동 당시,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1972)> 촬영 중 말론 브란도가 상대 배우를 유사 강간한 사건이 재조명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983년 방송 인터뷰¹¹⁾를 비롯하여 수차례 진술한 바 있고, 영화 <나의 이름은 마리아(2024)>¹²⁾는, 피해자의 사촌이 집필한 회고록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재구성하였다. 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는 피해자 사망 후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피해자 마리아 슈나이더가 ‘배우가 아닌 소녀로서 강간의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영화에 담기 위한 의도’로 ‘영화 속 성폭행 장면을 슈나이더에게 미리 밝히지 않고 브란도와 합의하여 촬영’하였다고 밝혔다.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안전 위협 경험은 위의 두 사례처럼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는 행위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덕제 성폭력 사건은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유형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다수의 연극계, 영화계 내 사건들이 미투 운동으로 알려진 바 있다. 남녀고용평등법¹³⁾에 근거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큰 단기 계약 중심의 고용 환경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가 좌절되었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미투 운동을 통해 폭로된 것이다.

미투 운동이 남긴 과제는 문화 산업 내에서 여성 배우에 대한 성적 침해가 큰 ‘손해’를 일으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부담이 매우 높은 법적 절차나 공론화 외에 산업 내부의 문제 해결 경로를 구축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을 수행하는 여성 배우의 안전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문제’ 삼는 것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문제’를 ‘조심’하는 태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에만 그칠 뿐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례 G>는 시나리오에는 신체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에 캐스팅되어 감독과 사전 미팅을 했을 때, ‘실질적인 노출’을 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바로바로’ 말해달라는 언급만 들었던 경험이 있다. 해당 신체 부위가 어느 정도까지 노출되는지, 어떤 의상을 입고 촬영을 하는지에 대해 먼저 물어보기가 난감했고, 물어보아도 바로 답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후 경력이 쌓이면서 구체적인 협의를 먼저 하지 않으면 연출과 관련된 사항이 ‘결정’이 되면서 협의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다.

10) 이세아. (2017.10.20.). ‘남배우A 성폭력 사건’ 유죄 판결이 남긴 것. 『여성신문』.

URL: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97>

11) 마리아 슈나이더는 프랑스의 TV프로그램 ‘시네마 시네마(Cinéma Cinémas)’ 인터뷰에서 영화 산업의 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했다. 엘리자베스 수브린 감독이 이 대화를 재현하는 단편영화 <마리아 슈나이더, 1983(2022)>를 발표한 바 있다.

12)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몽상가들(2003)>에 조연출로 참여했던 제시카 팔뤼 감독이 각색과 연출을 맡았다. 국내에서는 2025.11.26. 개봉되었다.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고 접수, 사실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질문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프로덕션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촬영 전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 또 스탭 분들도 미리 확인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뒤로 미루면 안 될 거라는 것을 일을 하면서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해서 촬영 날짜가 다가오다 보면 그때쯤에는 뭔가 연출적으로 하나씩 결정이 되고 그 결정들을 수정하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사례 G>

문제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할 뿐 신체 노출의 자세한 내용을 협의하지 않았을 때, 배우의 불안은 높아지게 된다. 제작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촬영의 세부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필요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연기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 발견과 해결이 모두 여성 배우에게 떠맡겨지게 된다.

영화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 J>는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의 ‘조심스러운’ 점을 배우가 ‘편안한 상황’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설명하였다. 촬영 계획이 콘티로 상세하게 나와 있어도, 실제 현장에 가면 ‘매번 진지하게 앉아’ 협의를 할 시간이 없고, 배우가 ‘상황에 이끌려’ 불편함을 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에 합의를 봤다고 해도 촬영장에서 막상 카메라가 돌아가면 다를 수 있거든요. 악의를 가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촬영하는 현장의 공기와 그 현장의 무드라는 게 있어요. 사전에 그림 콘티가 나왔다고 해도 콘티와 똑같이 찍는 게 아니라 실제 공간의 분위기와 배우 동선에 따라 카메라가 달리 돌아갈 수 있고. 그걸 매번 진지하게 앉아가고 ‘콘티의 이 부분이 이만큼 달라졌는데 이게 될까요?’ 라고 합의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에요. 촬영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그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배우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걸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배우 당사자가 이거를 지금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느낀다고 하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성[폭력 예방]교육 받은 그거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건 거죠. 이 상황이 배우가 편안한 상황인 건가, 상황에 이끌려서 가는 걸까,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거죠.” <사례 J>

<사례 N>은 오랜 기간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여성 배우들이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을 수행하면서 겪는 고충이 상당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장면을 촬영하면서 배우의 안전을 보장하는 특정한 방법이나 지침을 상상하기는 어려웠다. 창작의 방향과 현장의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전에 계약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때, 배우가 불이익을 입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조율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계약서 조항에 다 넣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촬영장에 갔을 때 안 됐을 때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움이 오래 가면 이 배우가 욕 얻어먹으니까 [촬영 재개를]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있긴 있죠. 그런 차원에서 뭔가 생긴다면 좋겠죠. 보호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례 N>

<사례 J>와 <사례 N>의 진술은 스태프들 역시 현장에서의 갈등을 예상하고 긴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화 프로듀서인 <사례 J>는 촬영 현장의 여건과 제작 일정에 맞추어 촬영을 진행하는 입장이기에 배우에게 필요한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을 느끼고,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는 <사례 N>은 제작사가 배우와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 항의해야 할 때 배우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하게 된다. 드라마를 연출하는 <사례 K>의 경우 자신이 배우에게 연기를 지시할 때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심스러움을 토로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을 수행하는 것이 활동 기회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비롯되거나, 배우로서의 자신을 ‘어필’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배우 직군 참여자들은 성적 행위 묘사나 신체 노출이 있는 배역을 맡았을 때 자신의 몸 이미지를 성적 자극의 수단으로 ‘소비’하는 관객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신인 여성 배우들이 이러한 ‘소모적’인 위치에 놓이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는 점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제작 직군의 참여자들은 배우에게 협상의 주도권이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성적 행위 묘사나 신체 노출이 있는 장면을 어떻게 안전하게 촬영할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성폭력 사건 등의 다소 명확해 보이는 ‘문제’ 상황을 피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배우에게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제공하고, 이를 어떤 과정을 거쳐 협의할지 등에 대한 ‘디테일’을 안내받은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2.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중 안전 위협 경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중 안전 위협’은 문화 산업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지만, 연구 참여자에게 이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의 범위와 안전의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느낀 경험을 떠올려 면접에 참여하였다. 면접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안전 위협 경험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가. 성적 행위 묘사가 아닌 ‘진짜’ 행위를 강요

<사례 D>는 대학 졸업 공연에서 지도 교수가 자신의 몸에 상대 배우가 실제로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연기하게 한 경험이 있다. 졸업 공연 작품은 고전 희곡이었는데, 지도 교수는 자신의 소속 극단에서 각색하여 상연한 버전으로 공연을 연출하였다. 대본에 해당 장면의 구체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지문이 없었기 때문에, 원작에 없는 성적 행위가 어떻게 삽입되었는지 각색 대본을 읽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본 리딩이 끝나고 배우들이 움직이면서 장면을 구성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시기에 이르렀을 때, 지도 교수는 해당 장면에서 상대 남성 배우와 자신의 행동을 단위별로 끊어서 지시하기 시작했다.

“연습 진행 중에 마이크를 잡고 되게 기계적으로 시키거든요. 자,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근데 그때 가슴까지 입맞춤을 한다는 걸 아무런 양해를 구하는 것도 없이, 그때 디렉팅으로 처음 알게 됐어요. 대본에서는 몰랐어요. 리딩 과정에서는 전혀 몰랐고.” <사례 D>

당시 교수가 지시한 행위는 상대 남성 배우가 테이블 위에 누운 자신의 얼굴, 목, 가슴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다리를 움짤’거리는 등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표현까지 세부적으로 지시했다. 초반에는 지시를 따르지 못하여 얼어붙기도 했는데, 교수는 이를 개의치 않았다. 연극에서는 관객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배우나 사물을 클로즈업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입을 접촉하지 않아도 충분히 접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실제 접촉을 한다면 공연이 임박하였을 때나 극장 리허설부터 수행하여 실제 접촉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통상의 관행이다. 그러나 지도 교수는 연습 초기부터 상대 배우가 실제로 입을 맞추지 않고 맞추는 것처럼 보이도록 움직이면 연기를 중단시킨 뒤 ‘진짜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사례 D>는 실제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으면 해당 성적 행위 연기를 반복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입을 맞추는 것을 미안해하는 상대 배우를 오히려 설득하였다. 지도 교수가 해당 장면을 ‘하루 종일’ 반복하게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졸업 공연 연습은 정규 수업을 모두 마치고 저녁 시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흔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연기를 교수가 밤새도록 설명 없이 반복하게 하여 탈진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던 경험도 이러한 불안을 자극했다.

“하는 시늉 같은 거 할 때 교수가 항상 제대로 하라고 브레이크(break)를 걸어요. 진짜로 하라고. 그래서 항상 시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시늉하다 보면 계속 이 장면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그냥 제대로 한 번, 시늉하지 말고 직접 터치가 있더라도 그냥 해도 된다, 그래야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Q : 브레이크를 걸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브레이크 걸면 계속 시켜요.”

<사례 D>

<사례 D>는 당시 성적 재현 장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졸업 공연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였다.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연기를 하지 못하고 ‘얼어붙는’ 상황을 자책했기 때문이다. 교수는 자신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판 식으로 하면 밖에 나가서 아무 것도 못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유명 극단에 소속되어 소위 연극계의 ‘주류’에 있는 교수에 이와 같은 비난을 듣자 정말 자신이 연극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지도 교수는 설명 없이 반복만을 지시하는 연습 지도 외에도, 물건을 던져 극장 유리를 깨뜨리거나 학생에게 ‘인물의 정서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얼굴에 물을 끼얹는 등 폭력을 빈번하게 휘둘렀기 때문에 연습실의 긴장도는 매우 높았다. 교수에 폭력에 누구도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이 ‘적응을 못하는’ 것이라고 느꼈다. 교수의 폭력에도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하려는 생각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연습에 임하는 동료 학생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때 저의 눈에는 그들(동료 학생들)이 너무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만 적응을 못하고 얼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이걸 병이 나더라도 다 감내하고

하는 게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그때는 저의 그런 모습을 자책했어요. 불편하면 똑 딱거리는 나, 불편하면 정지되는 나. 사회에 나가면 불편한 게 많을 텐데 나는 어떻게 배우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자책감.” <사례 D>

<사례 D>가 대학 수업에서 실제로 신체를 접촉하면서 성적 행위를 묘사하도록 강요받은 것은 졸업 공연에서만 아니었다. 대학 2학년 수업에서도, 3학년 수업에서도 작품의 한 장면을 실연하는 조별 과제를 지시하면서 실제로 입을 접촉하여 키스신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교수들이 있었다. ‘진짜’ 키스를 하지 않으면 학점을 낮게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지시하고, 실제로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 키스신을 수행하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았다. 물건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등 폭행 행위가 있는 장면의 경우 ‘아프지 않게’ 폭행으로 보이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도했지만 키스신에 대해 유독 ‘진짜’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구강으로 인한 질병 감염 등 위생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사례 D>는 막상 졸업 후 공연 현장에 나왔을 때, 연극무대에서 입을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키스신을 수행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키스신 해본 적 있어?”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학교의 경험이 전부예요. 2, 3, 4학년. 근데 동료 여배우들한테는 실제 키스를 한 키스신의 경험은 거의 없더라고요.” <사례 D>

최윤경(2019)은 배역의 트라우마로 인한 간접 외상을 경험하는 배우들의 사례와 함께, ‘감각적 기억’을 학습하는 ‘메소드 연기’를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을 해친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는 촬영 기간 중 촬영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약물복용, 자해 등 자신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동료 배우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¹⁴⁾ <사례 D>가 대학 재학 중 경험한 교수들의 관행 역시 ‘메소드 연기’ 이론을 왜곡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극 중 인물의 감각과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행위든 실제로 시도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은 관계자와 대중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는 과도한 경쟁심리로 인해 더욱 강화되면서, 배우는 연기를 위해 어떤 행위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군가 연기를 위해 어떤 행위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배우를 포함한 다양한 직군과 협업하고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통상의 사회 규범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례 D>에게 키스신에서 타인과 입을 접촉하여 인물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실제로 느끼며 연기할 것을 요구한 교수들은, 사물로 상대를 가격하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다치지 않도록 행위를 조정하게 했다. 신체적 부상은 피해야 할 위험이지만, 성적 접촉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심리적 타격은 위험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여성 배우들이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과 관련하여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배경에는 여성이 느끼는 불쾌감을 심리적 안전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 사회적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사전 협의 없이 성적 재현이나 신체 노출을 지시

14)배우 샤이아 라보프는 영화 <로우리스(2012)> 촬영장 및 일상에서도 극 중 배역인 잭을 똑같이 묘사하여 위스키를 과량 섭취하고, 자신의 이니셜을 동료 배우들의 집 문에 새기고, 자신의 형 역할을 맡은 배우 톰 하디를 실제 형처럼 이상화하고 말싸움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몇몇은 성적 뉘앙스가 부여되지 않았던 인물의 행위에 예상치 못하게 성적 뉘앙스를 부여하거나, 성적 맥락이 없는 장면임에도 가슴 주변이나 골반 주변, 속옷이 보이는 것을 의도하는 의상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 배우의 입장에서는 인물의 물입을 방해하고 수치심을 유발하지만, 연출가 및 제작진은 이를 사소하게 여기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사례들이다.

<사례 F>는 연극 공연을 경험하고 싶거나 배우를 지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극단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공연에 참여한 뒤, 해당 극단에 단원으로 입단했다. 데뷔작에서 권력 집단의 구성원 역할로 다른 인물의 집에 들이닥치는 장면을 연기했는데, 공연이 임박하여 극장에서 리허설을 하던 중 연출자가 소품으로 놓인 바나나를 집어서 먹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다른 등장인물의 집에 불쑥 침입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행위가 추가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연출가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미루어보아 성적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꼈다. 바나나를 집어 든 자신에게 ‘입에 쑥 넣어서 먹으라’고 하면서 비웃듯이 웃는 연출가의 모습을 보고, 우려했던 바와 같이 바나나를 남성 성기로 연상하고 입에 넣도록 지시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여러 해가 지난 연구 참여 시점에도 자신이 바나나를 든 채 무대 위에서 있었던 당시 상황이 생생히 떠오를 정도로 강한 불쾌감을 느꼈다.

<사례 E>는 20대 후반에 연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배우 활동의 기회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단편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게 되었다. 시나리오에는 주연 배우와 자신이 달리는 장면이 ‘슬로우’로 표현된다고 쓰여있었고, 촬영 당일 제작진은 ‘느린 호흡으로 말 타듯이’ 움직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제작진이 말하는 뉘앙스와 촬영 후 웃는 모습을 보면서, 달리기를 하는 몸의 움직임과 거칠어진 호흡을 성행위를 하는 모습처럼 편집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당 장면이 실제보다 느리게 보이는 효과를 입히고 달려서 거칠어진 숨소리를 강조하여 편집된 영화를 보면서, 자신이 출연한 장면이 마치 ‘섹스신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촬영 중에는 주어진 지시대로 ‘일단 잘하려고’ 하였고, 스태프들의 재미있어 하는 반응에 자신도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영화를 보았을 때는 수치심이 들었다.

“장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느껴지니까. 옷을 다 입고 있어도 소리와 상상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 너무 뻘하게 있으니까 그게 수치감으로 오는 것 같아요.” <사례 E>

<사례 E>는 촬영 전에 자신의 연기에 성적 뉘앙스가 부여된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했다. 촬영 당시 제작진의 지시 내용과 현장의 분위기를 통해 암묵적으로 알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해당 장면을 ‘재밋게’ 연출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의도에 공감할 수 없을뿐더러, 자신의 성적 이미지가 서사에서 갖는 의미가 없이 ‘소모적으로 쓰였다’고 느꼈기 때문에 수치심이 더욱 컸다.

“제가 의도하지 않은 장면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재밌겠다’, 나도 재밋게 생각을 하고 이 장면이, 여기서 내가 이런 역할로 이게 효과가 있다 하면, 인물(주인공)에 크게 변화를 주거나 그런 거였으면은 또 다르게 보였을 텐데.”
<사례 E>

<사례 E>는 촬영 현장에서 ‘스스로 이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어렵고, 판단한다 해도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느낀다. 수행을 한 후에는 ‘이제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배역이 없을 때는 ‘소모되는 배역’이라는 이유로 출연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 ‘작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도’가 있어야 ‘선택권’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 여성의 성이 대상화되지 않으면서도 성적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사례 F>에게 바나나를 입에 넣으라고 한 연출가의 지시는 성희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정도로 지시의 내용과 태도에서 노골적인 비하 의도가 비쳤다. ‘남의 음식 뺏어 먹는다’는 해석은 연출의 지시를 최대한 희곡의 맥락에 맞게 반영하려는 노력이자, 자신의 위치를 성적 비하의 대상이 아닌 연기를 수행하는 배우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가 좀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연출가가] ‘아니야 그냥 하지 마’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악’ 씹어 먹는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등장인물)이 장난스럽게 [바나나 꺾질을] 까다가 ‘이제 이놈들 족쳐야겠다’ 하면서, 그때 암전도 딱 바로 컷인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도 컷인으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례 F>

<사례 G>는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신체 노출이 연출부와 협의한 바와 다른 뉘앙스를 띠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촬영 당일 이를 조율할 수 없는 상태로 신체 노출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 등장인물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장면이었는데, 대본 수정 후 바지를 입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지문이 추가되었다. 여성 연출부원들은 사전 미팅에서 해당 수정 사항을 먼저 언급하며, 신체 특정 부분이 부각되지 않도록 폴샷으로 촬영할 것이고 의상을 입었을 때도 우려할 정도의 노출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준비 기간 중 의상 피팅을 하러 가보니, 박스티와 몸 선이 드러나고 속이 비칠 수 있는 얇은 소재의 티셔츠가 함께 제시되었다. 박스티가 작 중 상황에 더 적합해 보인다는 의견을 프로덕션에 제시하고 돌아왔지만, 촬영 당일에는 얇은 소재의 티셔츠를 받았다. 프로덕션에서 브래지어까지 의상으로 준비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사전 미팅 내용과는 달리 감독이 브래지어와 팬티가 어느 정도 보이는 장면을 의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기하다 보면 이게(속옷이) 보일 것 같은데’라고 스탭 분께 말씀드리면 ‘근데 이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어쨌든 감독님이 결정하셔야 돼서 현장 가서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볼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현장은 너무 바빠서 미리 결정하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정해진 결정을 수정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려워요.” <사례 G>

“방해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잡스러운 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연기를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어디서부터 내가 제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이 옷이 싫다고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 아니면 대본 자체에 대해 수정 가능한지 얘기를 하는 게 맞았을까.’ 여러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 G>

연기를 하면서 잠에서 깨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면 가슴과 골반 주변이 쉽게 노출되었고, 노출을 막기 위해 옷매무새를 만지면 인물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졌다. 결국 촬영 도중 끌려 올라가는 티셔츠를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잡아 내리면서 NG가 났다. 감독은 현장에서 다리를 확실히 노출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사전 미팅에서 연출부원들에게 촬영 현장에서 원치 않는 노출을 요구받거나 타이트한 앵글로 촬영이 되는 등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경우 남성 감독과 바로 소통하기보다 여성인 연출부원에게 따로 의견을 말할 수 있을지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막상 촬영장에서는 연출부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사례 G>는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어 최종 결과물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들도 신경이 쓰인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후 자신이 카메라 쪽으로 움직이면서 신체가 더 노출되거나, 신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NG가 난 영상도 현장에서는 모두 공유되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이 동시에 여러 스태프에게 송출되고 편집실에서 반복재생된다는 점이 자신을 더 ‘에민해지게’ 만든다. 의상 등으로 예상치 못한 신체 노출이 발생하면 ‘당황스러운 마음’ 때문에 연기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안 씬에도 불구하고 이게 찍히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스태프의 기기에 송출되고, 편집 과정에서도 보게 되요. 관객들이 보는 결과물은 제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가 아니겠지만 준비하는 과정, 또 촬영하는 과정, 또 촬영 현장에서 배우가 겪는 상황들이 결과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고, 당황스러운 마음 때문에 연기가 방해받는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례 G>

베드신이거나 가슴 노출, 전신 노출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관련 협의 사항이 명시되고 촬영 시에도 스태프들이 지켜야 할 수칙이 있지만, 의상이나 카메라의 앵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슴 주변이나 골반 주변의 노출은 계약에 명시하기 어려운 ‘애매한’ 노출이다.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슬쩍’ 진행되기도 한다. <사례 G>는 현장 경험이 쌓이면서, 신체 노출이 있는 장면을 촬영할 때 소속사 매니저에게 촬영 현장 내부에서 대기하기를 요청하게 되었다. 매니저는 촬영장 밖에서 기다리는 편이 나올지 물어보았지만, 오히려 모니터 옆에서 모니터에 송출되는 영상을 보면서 핸드폰으로 촬영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현재 자신이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모니터에서 거리를 두고 연기를 하고 있을 때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성희롱일 수 있는 대화’를 나눌 가능성도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

<사례 F>와 <사례 E>의 경우, 연출가와 제작진이 배우에게 성적 뉘앙스가 부여되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특정 행동을 요구하였다. <사례 G>의 경우 배우와 연출부가 사전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할 것을 요구하였다. 배우는 사전 협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사전 협의에서 자신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했던 여성 연출부원들은 정작 현장에서 만날 수 없었다.

신체 노출의 범위가 크게 변동되거나 직접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연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배우가 연기해야 하는 행위에 협의하지 않은 성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협의와 다른 신체 노출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배우들의 심리적 안전을 위협한다. 공연이나 영상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성적인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요구

하는 제작진의 태도로 인한 불쾌감과 또 어떤 요구가 추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맥락 없는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로 인물의 입체성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몸 이미지가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연기를 위한 몰입에 방해를 받기도 한다.

다. 계획 없는 ‘시도’나 필요 이상의 반복적 수행

연극, 영화, 드라마의 최종 결과물은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의 특성, 그 안에 놓인 배우의 몸과 정서가 의상, 소품, 조명, 음향 등 시청각적 요소와 상호작용하면서 구현된다. 이러한 시도들은 서로 영향을 받으며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예측불가능한 우연은 시도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창작 촉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배우 역시 대본을 토대로 설계한 연기가 연습실과 무대, 촬영 현장에서 상대 인물이나 시청각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더 풍부해지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배우가 우연적 요소로 인해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으리라는 안정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 위험을 경계해야 하는 불안한 상태에서는 우연적 요소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를 연기에 반영하기보다 위축되고 방어적으로 반응하기 쉽다. 신체를 노출하거나 상대방과 신체를 접촉하면서 성적인 행위를 움직임으로 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체적·심리적 경계를 타인이 쉽게 침범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개방적 태도를 갖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적 행위 묘사와 신체 노출이 포함된 인티머시 신(Intimacy Scene)의 계획과 수행을 관리하는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의 역할 중 하나는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을 ‘안무’하는 것이다. 등장인물이 사고를 당하거나 폭력 행위를 하는 등 부상 위험이 있는 장면에서 배우의 움직임은 철저히 계획을 따른다. 계획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익힐 때까지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하고, 스태프들 역시 배우가 움직임의 반복을 최소화하도록 준비와 연습을 거친다. 성적 행위 묘사 역시 배우가 신체적·심리적 경계를 예측불가능하게 침범당하지 않도록 움직임을 계획하고, 옷을 입은 상태나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연습을 거치면서 배우가 취약한 상태에서 연기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이 있는 장면을 연습하면서 연출가가 여타의 장면과 다름없이 아무런 약속을 정하지 않고 배우들로 하여금 즉흥적으로 움직이게 할 경우, 여성 배우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긴 시간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사례 C>는 자신이 맡은 인물이 상대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계획이 없는 상태로 연기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 대본을 리딩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지문에 대해 어떤 자세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성관계를 표현할지, 관객에게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리딩을 마치고 ‘프리 블로킹’을 하는 과정에서, 연출가는 배우들 간의 어떤 협의도 없이 성관계 장면을 움직임으로 ‘시도’하도록 했다. 이에 상대 배우와 마주 보는 상태로 상대의 몸에 한쪽 다리를 걸쳐 골반이 맞닿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도하여 마주 섰다. 이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표현하는 흔한 구도로, 작 중 상황에도 적합했다. 그런데 상대 배우가 자신의 머리를 하반신 쪽으로 누르며 신음을 하여 구강 성교를 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였고, 예상하지 못한 방식에 놀라 상대 배우의 골반에 얼굴이 가까워지지 않도록 머리에 힘을 주고 버텼다.

“[연출가가] 그 장면을 이렇게 저렇게 할 거더라는 말씀이 전혀 없었고, 그 배우가 연출님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보는 걸 택한 것 같아요.” <사례 C>

<사례 C>는 당시 매우 불쾌했지만, 상대 배우에게 불쾌함을 표현하거나 연출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다. 해당 연습에 참석하지 않았던 선배 배우에게 불편함을 호소하자 ‘그런 거는 바로바로 얘기해야 된다’는 조언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 해도 자신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감히 배우가’ 연습을 중단시키는 것은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 행위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나 이거 너무 기분이 좀 그래요’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난 뭔가 되게 예민한 배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감히 연출도 아닌 배우가 연습을 끝내는 게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됐고. 웃으면서 넘어가더라도 어떻게든 넘어가야 된다.” <사례 C>

<사례 K>는 드라마 제작사에 입사하여 10년 이상 연출부로 일한 뒤 첫 단독 연출작을 제작하였고, 현재 프리랜서 연출가로 일하고 있다. 단독으로 연출한 첫 작품에서 키스신 촬영을 하였는데, 자신의 촬영 진행 방식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 배우와 스태프들이 고충을 겪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대해 숙고한 경험이 있다. 해당 신은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이 TV로 시청하는 가상의 ‘B급 멜로 영화’ 장면이었다. 두 인물의 키스신을 약 30초 정도로 편집할 수 있도록 촬영하는데 촬영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소요되었다.

“촬영 감독님도 힘들었다고. 왜냐하면 테이크(take)¹⁵⁾가 너무 기니까. 다 핸드헬드(hand-held)¹⁶⁾로 카메라 들고서 했는데. (...) 찍고 나서 배우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엄청 체력 소모가 되는 신이었고 찍고 나서 그 여배우 표정을 보면서 불편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신을 찍고 나서 그날 바로 느낄 수 있었지.” <사례 K>

배우의 연기 호흡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중간에 최대한 끊지 않고 촬영을 하였는데, 스태프들의 피드백을 포함한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 나서야 해당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후 다른 연출작에서 성폭력 피해를 재현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 ‘효율적’이고 ‘시간 낭비’가 없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 촬영을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현장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찍네, 저렇게 찍네 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더 많이 준비를 해 가게 되고. 거기서 서로 불편한 상황이 돼서 촬영이 지연되거나 이런 것도 다 손해기 때문에 중간에 불편하지 않게 [배우에게] 미리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배우 만나가지고 이런 신이 있다, 저

15) 카메라로 한번 촬영을 시작하고 마치는 단위를 뜻하는 용어로, 감독이나 연출 스태프가 ‘레디, 액션’으로 촬영 시작을 알리고 ‘컷’으로 끝을 알리기 때문에 ‘레디, 액션’에서 ‘컷’할 때까지의 단위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단위 안에 담기는 영상이 길면 ‘롱테이크’라고 부른다.

16) 카메라를 삼각대 등의 장비에 올리지 않고 촬영자가 직접 들고 찍는 기법을 뜻한다.

희가 찍을 환경은 이렇고요, 여기서 이렇게 [연기]하고 (...)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설명을 하고.” <사례 K>

<사례 K>는 장기간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일했음에도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장면을 촬영할 때 배우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었다. 촬영장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의는 받은 적이 있지만, 촬영 계획을 세우는 요령이나 배우와 상의하면서 성적 행위를 묘사할 때의 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경험과 고민을 통해 익혀야 했다.

연습 또는 촬영 계획의 미비함으로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연출가와 감독의 연출 역량과도 관련이 있다. 흔히 ‘그림’이라고 부르는 연출가의 의도 자체가 모호하거나, 의도에 맞는 구현 방식을 선택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때 창작을 위한 시도의 효율성은 낮아진다. 전반적인 창작 과정의 효율이 낮다면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장면 역시 모호한 지시로 인해 배우들의 수행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장면의 계획과 진행을 담당하는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와 같은 전문 스태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문성을 갖춘 담당 인력이 양성되어 있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에서의 위험이 연출가와 감독의 역량에 의존하는 변수로 방치된다. 신진 연출가나 감독과 주로 일하는 신인 여성 배우들은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성 배우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적인 담당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스태프들이 목격하는 여성 배우들의 안전 위협 경험은 다양하다. <사례 M>은 10년 이상 촬영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작진의 베드신 촬영 계획 미비로 여성 배우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들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곤 했다. 촬영한 베드신 중 한 장면이 ‘통편집’으로 삭제된 적도 있고, 현장에서 여성 배우가 벗어야 할 속옷이 테이크마다 하나씩 추가되어 촬영 시간이 길어진 적도 있다.

<사례 L> 역시 최근 영화 촬영을 하면서 감독이 베드신을 구체적인 계획없이 스무 테이크 이상 촬영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해당 촬영은 인서트 컷(insert cut)¹⁷⁾을 찍기 위해 추가로 일정을 잡은 촬영이었는데, 인서트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컷들도 다수 촬영하였다. 해당 촬영은 결국 참다 못한 배우가 감독의 설명 없는 반복 촬영에 항의한 후에야 종료되었다. <사례 N>은 매니저로 일하던 초기에 자신이 매니지먼트하는 여성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촬영 현장에 동행하면서, ‘콘티가 다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어차피 다 못 쓸’ 컷들을 감독이 ‘다 찍고 싶으면 찍는’ 베드신 촬영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 촬영을 마치고 차 안에 들어온 후에야 억누르던 감정을 터뜨리며 우는 배우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이후부터 촬영현장을 더 자주 지키게 되었다.

여러 공간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과 보정을 거쳐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하고 각각의 단계마다 대응해야 할 변수가 발생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특성상, 배우와 스태프들도 실제 결과물에 담을 영상만 정확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는 연극 연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본에 쓰인 대사와 지문을 연출 의도에 더 가깝게, 더 예술성을 높여 구현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움직임이나 이미지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행위 묘사나 신체 노출이 있는 장면을 구성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여성 배우의 취약한 상태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 없이 요구되는 성적 행위 묘사와 신체

17) 진행되는 장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짧게 삽입(insert)되는 영상을 일컫는 말. 인서트 샷(insert shot)으로 부르기도 한다.

노출은 예술을 명분으로 신체적·심리적 위험을 감내하는 여성 배우를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라. 공연 또는 촬영 중 성희롱·성폭력

공연 중인 무대나 드라마·영화 촬영장은 통상 배우와 연출 분야 제작진만 참여하는 미팅이나 연습보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큰 현장이다. 배우는 연습의 결과를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배역에 대한 몰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고, 주어진 인물로 연기를 수행하는 것 외에는 주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다. 자신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이유로 공연이나 촬영이 중단되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해도 다른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연기를 무사히 마치는 것을 상황을 중단시키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¹⁸⁾

<사례 B>는 극장 무대 뒤편에서 관계자가 노골적으로 자신의 몸을 쳐다보는 성희롱을 하고 있음에도 의상을 갈아입어야 했던 경험이 있다. 공연이 이루어진 해외 극장에는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 등으로 리허설부터 공연까지 무대 부근에 소방관이 상주하였다. 퇴장 후 의상을 갈아입고 다시 무대에 등장해야 하는 간격이 대기실에 다녀오기에 촉박했기 때문에, 관객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무대 옆 공간에서 환복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스태프가 다른 배우의 동선과 겹치지 않고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나올 수 있는 위치로 지정하여 갈아입을 의상을 둔 곳이 소방관이 앉아있는 자리 앞이었는데, 해당 소방관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자신을 쳐다보았다. 몸을 가릴 수 있는 파티션도 제공받지 못하고 소방관의 위치도 조정하지 못한 채, 매 회 공연마다 의상을 갈아입어야 했다. 극단의 ‘막내’ 단원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공연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더욱 수치심을 느꼈다.

“[소방관이] 쳐다보고 있었죠. (앉은 자리에서 턱을 괴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매번, 리허설 때도 오고 공연 때도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나는 [환복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사례 B>

<사례 H>는 대학 졸업 직후 인맥을 통해 단역으로 캐스팅된 영화 촬영 현장에서 주연 배우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맡은 배역은 대사가 없는 ‘기생’ 역이었다. 두 개 신에 출연하였고 두 신을 이틀에 걸쳐 촬영하였는데, 이틀 연속으로 상대 배우가 추행을 하였다. 첫 번째 신은 제작진이 배우들과 거리를 두고 멀리서 찍는 풀샷(Full Shot)으로, 상대 배우와 야외에서 마주보고 있다가 함께 실내로 들어가는 장면이었다. 촬영 시작 후 상대 배우가 자신의

18) 배우 조덕제 강제추행 사건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추행을 입고도 촬영을 중단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추행을 피하기 위해 카메라 앵글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고, 감독이 당연히 컷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여벌의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재촬영을 할 수 없었고, 촬영장소를 밤 12시 이전에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NG를 내면 여러 스태프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했다.” 감독은 추행이 발생한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한 시점이 촬영 장소를 대관한 시간이 종료되기 30분 전이었다고 진술했다.

가슴을 손으로 잡았고, 당황했지만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연기를 이어갔다. 카메라가 자신의 등 뒤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은 촬영되지 않았고, 제작진도 보지 못했다. 문제 제기를 해서 촬영 현장의 일정을 ‘딜레이’ 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껍 참고 촬영을 마쳤다. 그 날 밤 가해자는 촬영장에서 있던 일을 사과하였지만, 다음 날 두 번째 신 촬영 중 다시 추행을 하였다. 한복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기생의 치마폭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잠드는 장면을 연기하면서 갑자기 성관계를 시도하듯 자신을 쓰러뜨려 눕힌 뒤 몸 위로 올라간 것이다. 인물에 대한 몰입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행동에 반응할 방법이 없어 연기를 멈추고 감독을 바라보자, 감독이 가해자를 제지하였다. 카메라가 배우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가 상황을 목격했다. 자신이 연기를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감독이 촬영을 중단할 때까지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추행의 경우, 가해자는 자신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완력을 사용한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대놓고 연기를 안 했어.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분 나빠서라도 ‘야 너 연기 안 해’라고 해야 되는데, 완전 자기 혼자는 몰입이 된 거지.”
 <사례 H>

<사례 H>는 추행 피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촬영이 모두 끝난 뒤 집에 돌아와서야 느끼기 시작했다. 유일한 20대 여성으로 프로덕션에 참여하면서 중장년 남성인 캐스팅디렉터가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내거나, 촬영 후 회식 자리에서 배우들에게 성적 발언을 듣는 등의 성희롱도 여러 차례 겪은 뒤였다. 영화 시사회 등 후속 모임에 가지 않자, 함께 출연한 선배 배우와 PD에게 감독이 영화 크레딧에서 이름을 삭제한다고 하니 모임에 나오라는 협박도 받았다. 자신이 프로덕션 안에서 ‘성적인 포지션’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태도였다. 영화 제작 현장에서 또 유사한 상황을 겪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 이후로 한동안 영화 캐스팅 제안을 거절하였다.

<사례 H>는 영화와 드라마 활동을 시작한 후에도, 프로덕션에 참여하기 전 사전 협의에서 ‘불합리’해 보이는 점에 대해 ‘집요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캐스팅을 거절한다고 하였다. 제작진과 ‘애매한’ 협의를 하면, ‘현장 왔는데 말과 다르게 뭔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 경험이 ‘마음에 남는 상처’가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불합리한 게 들어와도 그냥 수긍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시기와는 다르게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이러한 단호한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예술 활동 중 성희롱·성폭력은 행위 유형에 따라 기존의 형법과 성폭력처벌법¹⁹⁾, 예술인권리 보장법²⁰⁾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극 무대나 촬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공개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증인 확보 가능성이 낮고, 배우가 연기 중에 성폭력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통념이 작용하는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따른다. 네트워크를 통한 고용이 잦은 업계에서 피해자

19)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약칭.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한 법으로 2010년 신설되었다. 형법에 명시된 강간과 추행의 죄 외의 유사강간,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고 친족 성폭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장애인 대상 성폭력 등 유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여 신설되었다.

2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022.9.25.시행)>의 약칭.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제정 목표 중 하나로 두고, 예술 활동과 예술 교육 활동 중 예술인,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관계자 등에 의해 겪은 성희롱·성폭력을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보호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엇보다 가장 큰 장벽이다.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을 하였던 <사례 O>는 문화예술계라는 실체 없는 ‘공동체’가 배우들의 성폭력 대응을 촉진하기보다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목격해 왔다. 공동체라는 단어는 그 안에서 윤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업계’라는 공동체는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평판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인에서]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든지, 그게 너(피해자)한테 혹시나 안 좋게 [작용할까봐], 특히나 배우는 얼굴이 알려지고 노출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번 그렇게 해서 업계에 좀 알려지거나 했을 때 추후에 활동이 어렵게 된단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사례 O>

<사례 B>의 경우 극단 단원이 아닌 극장 관계자에 의한 성희롱임에도 극단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고, <사례 H> 역시 프로덕션 내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추행의 경우 제작진과 출연진들이 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감독이 컷 사인을 하는 것 외에는 주연 배우를 직접 제지하지 않았고, 촬영을 마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장 왔는데 말과 다르게 뭔가 불편한’ 점이 남기는 ‘상처’라는 <사례 H>의 표현은, 협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스러움보다는 더 강한 뉘앙스를 띠다고 볼 수 있다. 프로덕션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안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사례 A>는 연극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인물을 연기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경험하였다. 성폭력 피해는 배역의 전사(前史)로, 극중 장면에는 없다. 대본에는 성폭력 피해와 피해로 인한 임신의 고통을 건디기 어려워 다른 인물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있었고, 연출가는 이 장면에서 바닥을 기어 다니고 울부짖는 등 정신적·체력적 소모가 큰 표현을 요구했다. 원하는 만큼의 강도 높은 표현이 나오지 않을 경우 ‘힘든 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기도 하였다. 강도 높은 표현을 끌어내기 위해 연습 중 눈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쫓긴다는 등 ‘한계에 몰아붙이는’ 가상의 상황을 즉흥적으로 연기하게 하기도 했다. 앞서 기술한 바 있는 ‘메소드 연기’의 극단적인 방식이었다. 자신이 실제로 울고 고통스러워할 때 만족스러워하는 연출가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 자신이 경험하는 심리적·신체적 고통이 ‘연극을 하는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연극이 자신에게 고통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들은 만족스러운데 나는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 있잖아요. (Q : 난 정말 고통스러워서 울었는데.) 그럼 나는 계속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럼 사실 저 사람의 디렉팅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연극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나는 연극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방식으로 연극을 사랑하면서 연극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례 A>

해당 연출가는 ‘강간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폭력 피해 경험, 성적 동영상 시청 경험 등 민감한 내용을 질문하기도 하였다. 성희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연출가의 가장 폭력적인 언행은 강간 피해를 감각적, 정서적 기억으로 연습시키려는 시도였다. 연출, 조연출과 셋이서만 참여하는 별도의 연습에서, 연습실의 불을 끄고 연출이 강간 피해 상황을 상세히 말로 묘사하면 그 내용을 행위로 표현하도록 지시하였다. 해당 연습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감정적 소진과 탈진 상태에 이르렀지만 연습 진행 방식을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탓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만 자꾸 따로 뭔가를 연습을 하게 되고. 씬 안에서도 잘 못 움직이고.”
<사례 A>

<사례 A>는 해당 공연 후 수년이 지났지만, 연극 오디션에 응시하지 않고 있다. 해당 경험 이후 자신이 ‘폭력으로 느낀’ 상황을 되새기며 ‘나를 지키기에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았다는 생각’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원에 연기를 전공하면서도 ‘인물로 작품에 들어가는 것에 자신이 없어져’ 다큐멘터리 극이나 퍼포먼스 작품에 참여하였다. 드라마 극에 참여하려 하면 이전 프로덕션에서 공황을 비롯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무서움’을 느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거부하지 못하고 ‘할 것만 같은 두려움’도 있었다.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그때는 공황인지 몰랐던 그 공황의 기억과, 자꾸자꾸 대사가 까먹어지고. 정말 배우가 이렇게 못한다고 말해도 되... ‘못하겠어요’ 하는 거를 안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못하겠다는 말이 자꾸 여기까지 나오는 그게 스스로 너무 싫으면서도 못하겠는 그거를 또 그렇게 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역할이 아님에도 또 그렇게 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드라마가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무서웠고.” <사례 A>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을 수행하면서 성폭력을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경험하였음에도 주변의 도움을 기대하지 못한 연구 참여자들은, 해당 분야의 현장 전체가 자신에게 적대적일 수 있다는 위축감을 경험한다. <사례 H>는 추행 피해 이후 영화 캐스팅을 거절하며 한동안 연극에 몰두하였고, <사례 A>는 드라마 극을 기피하였다. 이들은 자신에게 정신적 외상을 발생시킨 경험을 재해석하고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배우로서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지만, 여전히 창작 현장에서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이 안전 위협과 연관 지은 사례들은 성폭력 피해 앞에서 자신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상대의 욕구에만 집중하는 무력한 여성 인물을 연기해야 했던 경우, 제작진이 신체 노출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의상에 조명을 비추었을 때 속옷 실루엣이 비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촬영한 경우, 배우에게 촬영 구도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특정 신체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앵글로 촬영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3. 여성 배우의 안전 위협을 조장하는 요인들

배우 직군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지 않는 성적 재현이나 신체 노출 요구에 맞닥뜨렸을 때, 제작진에게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사례 E>는 지인에게 들은 에피소드를 전해주었는데, 택시를 타고 촬영 현장으로 가던 중 신체 노출이 있다는 고지를 받은 여성 배우가 이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여 고민하다가 제작진에게 이동 중 다쳐서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제작진은 바로 다른 배우를 섭외하여 예정대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한다. 연구자와 <사례 E> 둘 다 이 에피소드가 신인 여성 배우의 협상력 없는 위치를 보여준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어차피 대체가 용이한 단역이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자신의 의사로 배역을 거절한다고 하면 향후 고용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장에서 여성 배우가 심리적 위험을 유발하는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과 관련하여 여성 배우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여건은 사실상 안전 위협을 조장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협상 시도나 개입 경험에서 드러나는 위협 조장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가. 일상화된 고용 불안과 업계 내 서열

<사례 H>는 광고 출연을 중개하던 기획사를 통해 신체 노출이 강한 드라마 배역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다. 평소 광고 출연 제안을 하던 실무자가 아닌 임원이 직접 전화를 하여 감독 미팅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작품의 내용이나 배역에 대한 설명이 없이 주연 배우의 인지도가 높고 제작 규모가 큰 점만을 강조하였다. 이후 신체 노출과 성행위 묘사 등 성적 표현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해당 임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이 왔지만 반복하여 미팅 참석을 거절하였다. 그날부터 해당 기획사에서 주기적으로 제안하던 광고 캐스팅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처럼 신인 배우들은 캐스팅 제안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산업 내에서 배우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권력은 제작진 못지않게 상당하다. <사례 H>의 경우 광고 캐스팅을 매개하는 기획사에게 불이익을 받은 것이었지만, 소속사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을 것이다. 영화와 드라마의 경우 보조출연, 단역, 조연, 주연 등 다수의 배역이 있어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배역의 수는 매우 적다. 배역을 구인 구직하는 사이트에는 매일 공개 오디션 정보가 업로드되지만, 영세한 프로덕션이거나 단역인 경우가 많다. 대형 프로덕션의 경우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소속 배우를 섭외하거나 비공개 오디션을 개최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매니지먼트사와 협력하면 캐스팅을 위해 해당 회사의 프로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고, 계약부터 촬영, 홍보까지 프로덕션 전 과정에서 배우 관리를 매니지먼트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제작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보조출연자의 경우는 보조출연 업체와 계약하여 확보하고, 특정 신체 조건이 필요한 보조출연이나 단역의 경우 모델 업체나 광고 기획사를 통해 섭외하기도 한다.

연극의 경우 통상 영화나 드라마보다 적은 수의 배역이 등장하고 예산 규모도 영화나 드라마

에 비하면 매우 작기 때문에, 학연이 있거나 다른 프로덕션에서 만나 알게 되는 등 네트워크를 통한 캐스팅 비율이 높다. 물론 연극에도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배우를 섭외하는 대형 프로덕션이 있고, 국립 또는 시립 극단 단원의 경우 오디션을 통해 일정 수의 배우를 기간제 단원으로 선발한 뒤 그 안에서 작품 별로 캐스팅을 하기도 한다.

분야와 프로덕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배우가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직종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매니지먼트사나 기획사를 통하든, 프로덕션에서 만난 제작진에게 소개를 받든, 공개 오디션에 응시하든 네트워크를 통한 평판은 어디에서나 작용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갖지 않은 이상 배우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기보다 대중에게 선보일 새로운 얼굴을 찾는 업계의 관행 역시 배우들의 고용 불안정의 원인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들은 높은 경쟁을 뚫고 캐스팅이 되어도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거나, 이번 작품이 다음 캐스팅으로 연결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고용 불안의 일상화는 배우들로 하여금 창작 현장에서 협상력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례 N>은 소속 배우들의 출연 계약서를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조항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주인공이 아니면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례들을 접하기도 한다. 콘텐츠 구매를 유도하여 제작사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많이 팔리는 주인공’은 작품 제작의 ‘판이 돌아가는’ 중심에 서게 되기 때문에, 제작사에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우위는 출연료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노출과 관련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지도 높은 배우들, 소위 ‘A급과 A급이’ 연기하는 베드신의 경우 대역 고용이나 CG 활용 협의가 비교적 수월할 수 있고, 반대로 영화제 수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작품성을 보장하는 감독의 영화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배우도 수위 높은 신체 노출에 대역 없이 응할 수 있다. 신인 여성 배우의 경우, 베드신 촬영에 대역 고용을 협상하지 못하거나 대역을 고용하였음에도 감독이 촬영을 계속 진행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콘티가 예전에 비해서 더 잘 나와 있으니까 어디까지 수위를 할 것인지, 대역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게 조율되겠죠. (Q: 오디션이 된 다음에 조율을 할 때 좀 긴장될 것 같아요.) 긴장되죠. (Q: 사실 대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신인한테는. ‘이거는 무조건 가슴을 노출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한다고 그러면 [촬영] 가는 거고 안 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고]. ‘대역 쓰면 안 되냐’[라고 물어봐도] ‘베드신인데 어떻게 대역을 쓰냐’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사례 N>

“협의가 됐어. 어디까지 메인 배우가 하고 나머지는 대역 배우가 하는 게 됐어요. 근데 찍다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연기를 한 분들이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컷해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저희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더 원하세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신인들이 그걸 얘기를 못해요.” <사례 N>

<사례 G>는 현장에서 카메라 앵글이나 소품 위치를 조정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임에도 배우의 신체를 더 노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계약에 명시할 정도의 수위가 아닌 노출에 대해서는 쉽게 진행될 수 있다고 여기는 관행을 목격하곤 한다. 여성 배

우의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에 따르는 사회적 위험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한번 물어보는’ 제작진의 태도는 협의하지 않은 신체 노출 요구를 ‘예상’하고 ‘채비’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더 쉽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어리고 신인이기 때문에, 또 여성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고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사례 G>

<사례 H>는 자신이 시나리오를 ‘엄청 꼼꼼하게’ 검토하고 예측할 수 있는 현장의 변수를 고려하여 배우에게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감독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자신에게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보호해 줄 기본’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민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더라도 ‘긴장’을 유지하고자 한다.

“오히려 내가 크게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애초에 시나리오를 엄청 꼼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감독들이 ‘뭘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굳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면은 일어나는 변수에 내가 대처할 수가 없어. 내가 예민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느껴도 돼. 나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내가 예민해서 피곤할지언정, 예민하니까 조금 긴장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사례 H>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과 관련된 현장의 변수를 예측하고, 우려와 필요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작진과 협의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다. 관련 정보를 직접 탐색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얻어야 하고, 경험을 통해 협상의 기술을 습득해야 가능하다. 기획사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협의할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미리 협의하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긴장까지 감내해야 한다. 배우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획사의 경우 배우의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배우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정보 자체가 뒤늦게 주어지거나 비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사례 G>는 영화 오디션에 응시하면서 베드신이 있거나 전신 노출을 해야 하는 정도의 수위가 아니면 사전 고지가 없다는 점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베드신이나 전신 노출이 있어도 오디션의 초반 단계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동료 배우의 경우 오디션 공고에 없지만 소속사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언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신체 노출이 있는 배역을 아예 말지 않는 배우의 경우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 오디션을 보는 셈이고, 초반 오디션에 합격할 경우 오디션 후반 단계²¹⁾에서 신체 노출을 이유로 배역을 포기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사례 F>는 타 지역에서 촬영하는 드라마에 보조출연을 하기 위해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일일 촬영표를 받고서야 ‘시스루 한복을 걸치고 있는 기생들’이라고 기재된 장면이 있는 솜뽕 드라마라는 점을

21) 규모가 큰 상업 영화 프로덕션의 주연 배우 오디션은 통상 4차, 5차 이상 진행되고, 몇 단계를 거쳐 응시 인원이 줄어든 후부터 감독이나 제작자가 참석하여 배우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전체 대본은 최종 오디션과 가까운 상위 차수에서 받아보게 된다.

알게 된 적이 있다. 어느 정도 신체가 노출되는 의상인지, 자신이 해당 배역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촬영 현장으로 이동하는 내내 불안에 시달렸다.

<사례 L>은 최근 제작 편수가 증가하고 있는 숏폼 드라마 제작사들이 매니지먼트에 소속된 배우 섭외를 할 수 없는 열악한 여건에서 연기 경험이 적은 인플루언서나 BJ 등을 캐스팅하는 경향을 보게 되었다. 이들은 드라마 촬영 경험이 없거나, 배우 매니지먼트 경험이 없는 타 장르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어 소속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현장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해도 대응하기 어렵다. 촬영 현장에서 ‘연기를 본다고보다는 우선 빨리 쳐내는’ 숏폼 드라마의 작업 방식은 배우에게 ‘소비적’이기 때문에 배우가 연기력을 보여주거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다. 제작 품질이 낮은 상태에서 선정성으로 구독자를 유입시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노골적인 성적 재현도 잦다. 한번은 감독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촬영 현장에서 갑자기 배우들에게 키스신을 요구하였다. 배우들은 일단 촬영에 협조하여 해당 신 촬영을 마쳤고, 그중 한 배우가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제작진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저는 못 느꼈거든요. 키스신이 [시나리오에] 없던 장면인지. (...) 그날이 첫 회차였거든요. 다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얘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회차 거의 초반 신이어서 굳이 거기서 문제를 안 만들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했어요.” <사례 L>

숏폼 드라마라는 장르의 선정성을 배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는 이유로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을 계획이나 협의 없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L>은 지인이 조감독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감독이 임의로 배우들에게 성적 행위가 있는 장면을 구성하게 하는 것을 보고 조감독에게 사전 협의를 진행하도록 조언한 경험이 있다. 자극적인 요소로 구독자를 유입하기 때문에 성적 행위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르의 특성을 빌미로, 감독이 성적 재현이나 신체 노출을 ‘한 번 추가되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가볍게 인식했다는 것이다. 소속사가 없이 활동하는 배우의 경우 성적 재현이나 신체 노출에 대해 사전 협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도 하는데, 제작 환경이 열악하다는 핑계로 제작진이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캐스팅 권한이 있는 제작진과 캐스팅으로 선택을 받아야 하는 배우 사이의 권력 구조는 현장의 성차별과 함께 여성 배우가 경험하는 다양한 고충의 원인이 된다. <사례 G>에게 이러한 현장의 권력 구조는 ‘젊은 여성 신인 배우’로서 일한다는 것이 ‘암울’하게 느껴지는 요인 중 하나이다. 함께 출연하는 장면임에도 감독이 남성 배우와 둘이서만 상의를 할 때, 현장에서 ‘웃고 다니라’는 말을 들을 때, 화보 촬영 현장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성적인 뉘앙스를 부여하거나 신체 노출을 유도하는 포즈를 요구할 때,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방법을 찾기 어렵다.

“현장에서 여성 선배 배우분이 화를 내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러는지 알겠는, 그걸 느꼈어요. 기사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성깔이 있다든지 성격이 세다느니, 아이돌분들도 인성 논란, 뭘 어떻게 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여자 배우분들한테. 옛날에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가 연기를 하기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지점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있구나.” <사례 G>

높은 책임을 요구받는 데 비해 보호는 공백 상태인 여성 배우들의 상황은, 고용 불안정의 위험을 강화할 수 있는 부정적인 평판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을 갖게 한다. 자신이 갖출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갖춘다 해도 현장의 관행이 바뀌지 않을 때, 공식적인 요청보다 감정적 대응이 자신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데 더 나은 방안이라는 경험칙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제작사의 이윤을 가져다줄 인지도와 경력, 성별, 직종에 따라 서열화된 권력 구조와 고용 불안이 일상화된 산업에서, 여성 배우들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피하면서 안전을 추구하고자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다. 그러나 업계 내 서열의 하위에 있는 신인 여성 배우로서는 협상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 평판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나. 배우를 작품을 위한 수단으로 환원하는 규범

<사례 C>는 이십대 후반에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연극에서, 연출가로부터 극 중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뒷모습을 노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고민 끝에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가볍게 거절하였지만, 연출가는 연습실에서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며 상의를 벗게 하더니 ‘이 정도면 됐다’면서 재차 신체 노출을 지시하였다. 그 후 십 년이 넘는 연구 참여 시점에서 당시를 돌아보았을 때, 연출가가 자신의 등을 직접 보겠다고 하고 자신이 그에 응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왜 거기서 그걸 벗어서 보여줬지?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왜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보여줬지? 그 연출가는 왜 굳이 나를 연습실로 데리고 가 가지고 그걸 보여달라 했지?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례 C>

무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등을 노출하려면 가슴을 가릴 방법이 필요했고, 연습과 리허설, 공연에 걸쳐 다른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몸이 보이는 것을 최소화할 방법도 필요했다.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연출과 대화를 하였지만, 필요한 바를 요청한다기보다는 ‘허락’을 받는 과정에 가까웠다. 연출가는 리허설에서 해당 장면 중 배우와 스태프의 무대 출입을 통제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를 미리 고지하지 않아 연출의 지시가 있기까지 배우와 스태프들이 자신의 몸을 볼까봐 전전긍긍하였다. 신체 노출 여부부터 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이 모두 연출가와 협의하기보다는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 된 데에는 연출가와 배우 사이의 권력 관계뿐 아니라, 연출가가 필요하다고 한 장면을 ‘부끄러움’으로 인해 수행하지 못하면 ‘배우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는 규범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배우면 무대에서 훌쩍 벗는 게 뭐 그렇게, 이게 부끄럽거나 하면 난 배우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게 꼭 필요한 장면이에요’라고 [연출가에게] 물어봤는데 꼭 필요하대요. ‘그럼 해야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그걸 소화해내지 못하면 배우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 해야 되나.” <사례 C>

<사례 G> 역시 감독이 ‘오케이’ 사인을 한 것에 대해 자신이 신체 노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경우, ‘배우로서’ 주어진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과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하는 것을 느낀다. 신체 노출뿐 아니라 어떤 불편한 요구를 받았을 때, ‘배우로서 그냥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로서 불편하니까 거절해도 되는 건지’ 고민하게 된다.

“배우 입장에서 그 장면에서 내 신체가 이 정도로까지 노출되는 것이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감독님은 연출적으로 이게 마음에 든다면, 내가 그걸 거절하는 것이 배우로서 이걸 해내지 못하는 선택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나로서 내가 나를 못 지키고 있는 답답함도 동시에 들고.” <사례 G>

<사례 B>는 대학에서 실기 커리큘럼의 일환인 워크숍 공연에 참여하면서 성관계가 있는 뒤임을 암시하는 장면에서 하반신에는 이불을 덮고 상의는 속옷만 입은 채로 연기한 적이 있었다. 배우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몸을 쳐다보는 시선에 익숙해져야 무대에서 몰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연습실에서 해당 장면을 연습할 때도 속이 비치는 재질의 겹옷을 입었다. 신체를 노출하는 심리적 부담에 익숙해지기 위해 이를 더 반복적으로 감내한 것이다. 신체 노출 외의 부분에서도 자신의 심리적 부담을 돌보기보다 감내하면서 제작진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방식을 선택하곤 했는데, 이 배경에는 경쟁을 통과하면서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한 압력이 있었다.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하는 ‘상품의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품에서 뭔가 화려한 걸 어필되는 걸 보여주는 건 당연한 거고, 프로덕션이 진행되면서 내가 나이스한 배우로 보여지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프로덕션에서 혹시 모를 제작진들과의 커넥트(connect)도 놓쳐선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 소개시켜 줄 수도 있으니까.” <사례 B>

<사례 B>는 ‘자연인’으로의 자신이 아닌 ‘상품의 상태’로 존재하는 배우로 업계의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생활에서 정신적 소진을 경험했다. <사례 C>와 <사례 G>는 작품에 필요한 연기라면 어떤 행위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배우의 규범이 자신의 몸 이미지의 성적 재현을 스스로 통제하여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와 충돌할 때, ‘배우로서의 나’와 ‘불편함을 느끼는 나’를 분리하여 생각하고자 했다. 규범은 집단에 소속되어 생존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압력을 가한다. 그러나 문화 산업이 여성 배우에게 요구하는 규범은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의 위험이 있을 때 여성 배우를 산업의 종사자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배우들은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성적 안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상기하며 자아가 분리되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배우로서의 나’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과 ‘불편함을 느끼는 나’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생각의 초점을 옮기면서 시도할 수 있지만, 각각의 입장으로 몸의 감각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배우의 몸이 곧 신체를 노출하는 나의 몸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격을 침해받으면서도 제작진이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규범의 압력은, 여성 배우들로 하여금 몸 이미지의 개별성이 삭제되고 남성의 성적 대상인 여성으로 환원되는 것과 유사하게 작품을 위한 수단으로 환원되는 경험을 하게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에는 신체를 노출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창작자인 배우로서 느끼는 불편함도 포함되어 있다. <사례 C>가 자신의 상반신을 노출하는 것이 ‘꼭 필요한 장면’인지 연출가에게 질문한 것은, 신체 노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배우로서 해당 신체 노출의 필요성을 보다 이해하면서 수행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중 누구도 성적 행위 묘사나 신체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온 배우는 없었다. <사례 G>의 ‘이 정도로까지 노출되는 것이 싫을 수 있다’는 표현 역시, 감독이 제시한 정도의 신체 노출을 납득하기 어려운 배우로서의 상황을 드러낸다. 배우 직군 연구 참여자들이 작품을 위한 수단으로 환원되는 것에는 배우이기 때문에 연기를 위해 무엇이든 해내야 한다는 규범과 동시에,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장면의 ‘디테일’을 연출가나 감독과 협의하는 창작자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이 작동하고 있다. <사례 C>의 경우 배우가 등의 피부 상태 때문에 노출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더라도, 연출가는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신 노출이 필요한 연출 의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자신을 여성으로 환원하지 않는 작품에서 창작자로 존중받으며 출연할 때, 여성 배우들은 통합적 자아로 관객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사례 B>는 무대에서 여성 배우에게 요구되는 전형성을 깨고 자신의 힘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관객의 호응을 크게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여성 배우로서 자신의 몸을 평가받았던 경험을 재해석하며 노래를 하는 장면에서는 연출가와 의상 디자이너와 함께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면서 노출이 강한 의상을 입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강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한 신체 노출이었다. 여성 배우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납작하다고 느낀’ 경험을 돌아보며, 자신의 ‘파워풀한 몸과 성향’을 ‘최대치’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들은 어떤 면을 볼 것인지를 믿고 있었으니까. 그게 제일 컸어요.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인지를 믿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공연을 만드는 방향성 자체가 되게 뚜렷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 그런 믿음, 신뢰 같은 게 확실히 있었죠. 그래서 해보고 싶었던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 B>

이는 여성 스태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례 J>는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 프로덕션에 PD로 참여하면서 피해 장면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등장인물의 몸이 ‘대상화되지 않게’ 제작진과 함께 고심한 경험이 있다.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와 표현의 방식이 충돌하는 것이 ‘자기 부정’이자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그 장면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는 자기모순이고 말도 안 되는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룬 거죠.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 거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에 처해 있는지 아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방식은 피해자를 대상화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자기 부정이고 자기모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례 J>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배우로 일하는 데 있어서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기하는 인물의 목표와 정서에 부합하고 자신이 ‘소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 협의와 안전에 대한 보호가 필

요함을 고려하지 않는 프로덕션의 경험은, 연구 참여자에게 남성의 성적 대상인 여성으로 환원되듯 작품의 수단으로 환원되는 경험을 하게 한다. 반면 여성 배우를 여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취지의 작품을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프로덕션에서 구현하는 경우, 여성 배우뿐 아니라 여성 스태프도 통합된 자아로 일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다. 안전에 대한 협소한 해석과 저평가되는 여성의 안전 배려 노동

촬영감독으로 일하는 <사례 M>은 최근 ‘특이한 사례’로 고용된 적이 있다. 영화나 드라마 프로덕션에서 촬영 직군은 전반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는데, 그중에서도 여성을 찾아보기 더욱 어려운 팀에 고용이 된 것이다. 출근을 시작한 뒤, 베드신이 빈번한 작품의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베드신 촬영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여성 스태프를 충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촬영일을 시작한 초기에는 말단 스태프라는 이유로 베드신 촬영 현장에 있었고, 13년 차인 지금도 여성 스태프라는 이유로 베드신 촬영 현장에서 실무를 맡게 된 것이다.

<사례 K>는 최근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여성 스태프들이 여성 배우들이 치마를 입고 움직이며 연기를 해야 할 때 속바지 제공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기 시간에 몸을 덮을 것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배려’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목격하고 있다. 기존의 여성 비율이 높았던 의상팀뿐 아니라 제작부, 연출부, 스크립터에서도 ‘여성 스태프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생긴 변화다. 드라마 제작 환경이 근로시간 상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제되면서²²⁾ 배우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점 역시 변화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례 L>은 최근 연출부 전원이 남성 스태프인 촬영 현장에서 여성 배우가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로 성적 재현 장면을 촬영하는데 누구도 배우를 케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 촬영팀의 여성 스태프들이 자신들이 가진 천을 여성 배우의 몸에 덮어주는 모습을 보고 연출부 스태프가 자신들이 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이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사례 C>는 친족 성폭력을 다룬 여성 작가의 희곡을 여성 연출가가 연출하는 프로덕션에서 성적 재현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대본에 구체적인 행위가 모두 묘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성적 재현인지 ‘예상이 가능’했고, 성적 행위 묘사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피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주인공이 느끼는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에 대해 여성으로서 느끼는 ‘복잡한’ 마음을 연출가와 나누기도 하였다.

성별에 따라 성에 대한 사고방식과 실천 경로가 다르게 사회화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을 수행하는 여성 배우의 필요와 프로덕션의 보호 의무에 대한 인식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베드신 촬영이 있는 프로덕션에서 취약한 상태에서 연기하는 여성 배우의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 스태프를 고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대형 OTT 제작사들의 경우 현장 출입 인원과 모니터용 영상 송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여성 스태프 인원을 확보하여 현장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베드신을 촬영한다. 통상의 영화 제작 현장에서도 베드신 촬영은 원격 장비를 활용하여 배우가 연기하는 세트장

22) 영화 제작 업종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조항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업종 중 하나였지만, 2018년 장시간 노동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특례업종에서 빠졌다. 2021년부터는 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대부분의 상업 영상물 촬영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출처: 2021.8.21.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확대, 저예산 독립·예술영화 제작을 위한 과제>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발간자료 「한국 영화 [ISSUE]」 134호

안에는 여성 스태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인력만을 배치하고, 그 외에는 모두 세트장 밖에서 대기한다.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남성 스태프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여성 스태프들이 추가로 일을 하는 셈이다.

문제는, 여성 스태프들의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보상이 없을뿐더러, 남성 스태프들이 현장 인원 통제에 대해 공공연하게 불만을 표현하고 여성 스태프들의 노동을 보조해주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베드신 촬영 현장의 여성 스태프들은 예민한 촬영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남성 스태프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사례 M>은 남성 스태프들의 공격적인 언행이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면서 베드신 촬영 수칙이 ‘존중’을 기반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약속’이 아니라 남성 스태프를 ‘범죄자 취급’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남성 스태프들이] ‘빨리 나가야 돼, 괜히 있었다가 뭘 말을 들으려고’, ‘제작팀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근처에 있으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이런 반응을 정말 즉각적으로 하거든요. 여자 스태프들은 오히려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가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사례 M>

“와 나 이제 놀아야지. 나 이제 핸드폰 해야지. 수고해’ 이러면서 나가면 그거에 약간, 요즘 굶한다고 하잖아요, 약간 굶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녹초가 되어 있는데 막 저기서, 컷 하면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면은 뭐 하느라고 안 오나, 서브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곤 했죠.” <사례 M>

남성 촬영 스태프들이 여성 배우가 상반신 후면을 노출하는 신을 준비하면서 앵글 선택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가슴까지 보여주지’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배우는 현장에 없었지만, 스태프들이 모두 현장에서 일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베드신 촬영 현장의 인원만 통제할 뿐, 정작 배치되어 일하는 여성 스태프들에게 촬영 계획을 공유하지 않고 리허설에는 주로 남성인 헤드 스태프들만 참여하여 여성 스태프들의 업무 긴장도를 높이고 효율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촬영 수칙 준수의 초점이 여성 배우의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 조성보다 영상 유출로 인한 법적 문제 예방에만 쏠리는 경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례 K>는 ‘현장에서 촬영할 때 보여지는 모든 장면이 방송에 나가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는 좀 더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한다. 신체 노출이 있는 장면을 촬영할 때 감독들은 배우와 떨어진 곳에 설치된 모니터로 촬영본을 보기 때문에, 배우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만 카메라 옆에 배치하고 현장을 운용하는 것은 ‘촬영감독의 판단이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촬영 현장의 실무자로 소수의 여성 스태프를 배치하는 것보다 헤드 스태프인 촬영감독을 여성으로 고용하는 것이 촬영 수칙이 취지에 맞게 지켜지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여성 배우의 안전을 위한 전문 스태프인 인터머시 코디네이터를 두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있는 인터머시 코디네이터 제도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도 소개한 바 있으며, 한 명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영미권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 국내 인터머시 코디네이터도 있다. <사례 M>은 미국의 인터머시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수강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탐색하면서,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에 관한

미국의 제작 환경과 한국의 환경을 비교해보았을 때 문화 산업 종사자들의 ‘감수성’ 차이가 크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인티머시 신’의 개념 자체가 도입되지 않았고, 여성 배우의 안전을 베드신에 한정하여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낮고 여성이 다수인 직무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성차별 관행과 더불어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고용이 확산되기 어려운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무술 장면이야 정말 하다못해 뺄 때리는 거 합 맞춰주려고 현장에 오기도 하고, 현대극이며 차량 추격, 추돌, 정말 무술팀의 범위는 여러 가지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성적 재현이라고 했을 때 베드신. 노출 이퀄(equal) 베드신이다 보니까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는 그 신에만 필요한 사람이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인티머시라는 단어를 쓰는 것부터, 베드신뿐만 아니라 배우 간의 친밀함이 느껴져야 하는 장면에서는 이 사람의 역할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뭐 하다못해 손을 잡는다는가, 이게 성애적으로 표현이 된다면.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촬영을 하면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 현장의 감수성과 결이 맞지 않는. ‘아니 뭐 이런 거 찍는데 와야 되나, 참견을 들어야 되나’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사례 M>

인티머시 코디네이터가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는 것은, 해당 영역에 대한 중요성과 전문성을 인식해야 가능한 일이다. 관리 감독과 실무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스태프들의 협력이 가능한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사례 L>은 대형 OTT 플랫폼이 제작하는 미국 드라마의 한국 로케이션 촬영 현장에서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장면 촬영과 관련한 상세한 지침과 엄격한 현장 통제를 경험하였다. 해당 프로덕션은 전반적으로 장비와 인력이 국내 프로덕션에 비해 여유로웠고, 준비, 리허설, 촬영 계획이 여유로우면서도 구체적이었다. 베드신 촬영에서는 세트장 내 출입 인원을 정확하게 지정한 뒤 출입을 통제하는 담당자를 배치하였고, 컷 사인을 받으면 즉시 화면을 블랙으로 전환한 뒤 녹화를 마치는 등 카메라 조작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도 있었다. 이러한 지침은 사전에 문서로 받았고, 촬영 직전 ‘세이프티 미팅(safety meeting)’을 열어 다시 안내를 받았다.

“한국에서도 ‘여기는 최소 인원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공지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후반이 되면, 한두 테이크 지나면은 좀 흐지부지해지는 게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다들 급하니까. ‘우선 들어와’,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부르니까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 그걸 담당하는 팀이 있었고 제작팀에서 그걸 확실히 공지하고 조감독이 진행하고 이런 게 한국 현장에서는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였어요.” <사례 L>

제작 직군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과 관한 신체적·심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여성 스태프들의 실천을 보여준다. 영화와 드라마의 성적 행위 묘사와 신체 노출 장면 제작 현장은 여성 스태프들의 고용이 비교적 활발한 현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 배우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가 해당 영역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 없이 여성 스태프들에게 맡겨지는 현실은, 여성 배우의 안전 위협을 초래하는 남성 중심적 창작 환경에 대한 질문이 산업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다. 여성

배우들이 자신의 몸 이미지가 소비될 때 여성이라는 성별로 환원되는 것을 경험하듯이, 여성 스태프들 역시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창작 환경에 대한 통찰이 여성이라는 성별의 특성으로 환원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III. 결론

본 연구는 연극, 영화, 드라마 출연 경험이 있는 배우 8인과 영화,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 6인, 문화예술계 성폭력 전문상담원 1인을 심층 면접하여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과 관련된 인식과 더불어 수행 중 안전 위협 경험, 안전 위협을 조장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적 행위 묘사 등 강도 높은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은 여성 배우에게 출연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선택이자 경쟁에서 자신을 ‘어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한편, 자신의 몸 이미지가 성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소모적’인 방향으로 ‘소비’되는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제작사를 비롯한 제작진은 성적 행위 묘사나 신체 노출 장면이 관객의 이목을 끄는 효과를 갖는 동시에, 제작 현장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자본을 투자한 프로덕션의 결과물이 관객을 만나지 못하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배우가 안전하게 연기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디테일’보다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둘 경우 이러한 경각심이 개선을 도모하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을 수행하면서 연기를 위해 어떤 행위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왜곡된 배우 규범 아래서 안전장치 없이 ‘진짜’ 신체 접촉을 강요받거나, 성적 의미가 부여된 행위나 노출이 의도된 의상 착용을 예기치 못하게 지시받거나, 계획 없는 ‘시도’나 필요 이상의 반복적 수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인물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 또는 촬영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장르의 출연을 회피할 정도로 위축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배우 직군의 연구 참여자들이 느낀 안전 위협을 조장하는 요인으로는 고용 불안이 일상적이고 서열이 강고한 업계의 구조와, 배우라면 연기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배우를 작품을 위한 수단으로 환원하는 규범이 있었다. 또한 여성 배우에 대한 안전 배려 수칙이 직접적인 성적 행위 묘사와 일정 기준 이상의 신체 노출에 한정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동은 소수의 여성 스태프가 전담하고 있었다.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에 있어서 여성 배우의 안전을 구축하는 일이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나 자원의 제공 없이 여성 배우와 여성 스태프들에게 맡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이 여성 배우에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직접 경험하거나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위험을 예방하는 방안은 대부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직무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개인적인 노력에 그치고 있었다.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에 필요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나 인력 등의 자원이 투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배우의 안전한 성적 재현과 신체 노출 수행을 위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계약서 작성부터 연습, 공연 또

는 촬영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지침들을 개발·배포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여 프로덕션에 지원해야 한다. 실무 지침은 키스신, 베드신, 목욕신 등 특정 유형의 신에 한정하지 않고 신체가 근거리에서 있는 등 성적 친밀성이 드러나는 장면, 성적 이미지가 강조되는 의상이나 신체 특정 부분을 부각하는 앵글의 촬영 등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고 기획, 연출, 매니지먼트, 촬영, 의상, 음향 등 각 직군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에 관한 현장 실무 지침 개발과 전문 코디네이터의 도입은, 여성 배우의 안전을 단순히 여성 스태프에게 전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정확한 지침에 기반하여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성적 재현에 대한 페미니즘 지식이 문화 산업의 창작 현장과 상호 교류하는 담론장이 확산되어야 한다. 여성 문화 산업 종사자가 여성 이미지와 여성 서사를 창작하는 생산자이자 이에 대한 담론의 생산자로 현장의 언어를 풍부히 하고, 페미니즘 문화 연구가 배우를 비롯한 문화 산업에 종사하는 ‘현실’의 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하는 계기가 더 늘어난다면, 여성 배우들이 창작 현장에서 자신의 몸 이미지 생산에 개입하기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산업 현장에서 여성 배우를 포함한 연예인이 경험하는 성희롱·성폭력과 문화 산업에서 생산과 소비를 병자하여 발생하는 불법 촬영·합성·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이 필요하다. 신상이 공개된 상태로 활동하고 몸 이미지와 사적 정보가 대중의 관심사가 되는 배우 직군의 특성과 대중 예술산업의 여성 혐오 문화를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과 페미니즘 관점을 확보한 상담창구가 시급하다. 프리랜서 종사자가 대부분인 환경에서 신고 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고안하는 연구와 이를 해당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배우의 연기를 관람하는 연극과 영상으로 매개되는 영화·드라마의 제작 과정의 차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고, 각 장르의 제작 실무와 산업 현황에 대한 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역시 부족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연극, 영화, 드라마 제작 과정에 대한 정보는 연구자의 경험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설명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에 있어 여성 배우가 갖는 취약성을 프로덕션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청취하였기에, 배우의 수행이 산업 및 대중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에 대한 여성 배우의 인식과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위험의 유형, 그 위험을 조장하는 일부 요인에 대한 분석이 향후 여성 배우의 창작 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제도 구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성적 재현이 여성 배우의 일에서 돌출되는 위험이 아니라 직업적 자긍심과 역량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성평등한 사회의 가능성을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 강이수. (2015). 문화노동의 특성과 젠더의 문제 : 영국 창조산업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2), 181-211.
- 김성희, 김일란, 한영희(2006). 에로영화, 욕망의 산업화 혹은 '성적인' 실패(?). 여/성이론, 14, 185-204.
- 김은실. (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 김선기. (2025). 연극계 '페미니즘-청년' 세대단위의 형성, 여성학연구, 35(1), 69-109.
- 김지아, 윤영민, 강귀영(2019). 여배우의 이중위험. 한국방송학보, 33(2), 35-66.
- 김지연. (2020). 한국 청년영화 속 청년-여성 주체 재현 양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 김현경. (2014). 연예인 지망생 및 신인의 성형 경험과 '이미지 상품-주체'의 형성: 연기자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1(2), 3-32.
- _____. (2014). 기획사 중심 연예산업의 젠더/섹슈얼리티 정치학. 한국여성학, 30(2), 53-88
- 박유리, 이현울. (2025).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노동:드라마·영화 보조출연자의 이중적 존재와 창 의 노동의 경계. 언론과 사회, 33(4), 86-134.
- 양현경. (2024). 여성 연극인의 성폭력 대응 경험 연구 : 구조와 역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이수안. (2008). 소비문화산업의 몸 이미지와 젠더화된 응시. 한독사회과학논총, 18(2), 185-208.
- _____. (2014). 대중문화 공연에 재현되는 양극화된 젠더 디스플레이와 몸 이미지의 성애화 방식. 한국여성학, 30(4), 233-268.
- 이윤종. (2013). 포르노그래피, 바디 장르, 그리고 페미니즘. 문화과학, 75, 244-271.
- 정은아, 손승영. (2010). 패션모델의 노동경험 : '몸 프로젝트' 및 '프로정신'을 내세운 요구와 수용, 한국여성학, 26(3), 1-30.
- 주유신. (2003). 한국 영화의 성적 재현에 대한 연구 : 세기 전환기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최윤경. (2019). 연기론과 배우의 심리적 고통.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홍려나. (2023). 한국 드라마에서 재현된 여성 청년 세대에 관한 연구 : 박해영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 월터스, 수잔나. (1999).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김현미, 김주현, 신정원, 윤자영(역), 또 하나의 문화. (Walters, Susan, Making Sense of Feminist Cultural Theory,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Chung, J. J., & Piscitelli, Pia. (2025). The implementation and use of intimacy coordinators in motion picture productions.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 Entertainment Law Journal, 35(3), 649-698.
- Sørensen, I. E. (2022) Sex and safety on set: intimacy coordinators in television drama and film in the VOD and post-Weinstein era. Feminist Media Studies, 22(6), 1395-1410.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9. 여성 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연기자를 중심으로.
서울고등법원 (2017.10.13. 선고) 2016노4101 판결문

김효정, 2025, 침묵당한 여배우, 그녀가 꿈꾸던 세상은 여전히 영화였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131863i>

연세편집위원회, 2017,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연세지 111호, https://blog.naver.com/yonsei_edit/220998380156

조연경, 2016, [진단IS] 영화계 女인권 바닥.. 변화의 바람이 분다.

일간스포츠, <https://v.daum.net/v/20161206100205800?f=p>

최유경, 2016, '파리에서의 마지막 탕고' 감독 “강간 논란은 오해”.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12061755089673>